

# 哀怒喜樂之氣의 運動에 따른 太少陰陽人의 四臟大小 變化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趙榮 · 白裕相 · 丁彰炫\*

## A Study on Changes in the Size of the Four Internal Organs in Taesoeumyang Persons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Energy of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Young Cho · Baik You-Sang · Jeong Chang-Hyun

The present study examined internal environment where the size of internal organs (臟腑大小) of Taesoeumyang persons (太少陰陽人) is decided focused on nature and emotion (性情), taking no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arts triggering the rise and fall (升降) of the energy of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哀怒喜樂之氣) of nature and emotion(性情) and the parts expressing the results.

Because nature energy is incoming energy (順動之氣), it infuses energy to parts where the energy of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reaches and, as a result, forms relatively large-size organs (偏大之臟).

When the energy of the four internal organs is produced, the soul, spirit, mind and life (神靈魂魄) of the internal organs, which are triggered by outgoing energy, are consumed and as a result emotion is produced at parts where the energy of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reaches. It forms relatively small-size organs (偏小之臟).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focused on the direction of the energy of the energy of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moving up straight, moving up diagonally, moving down diagonally and moving down straight.

Keywords : nature (性), emotion (情), sorrow, anger, joy and pleasure (哀怒喜樂), the size of internal organs (臟腑大小)

### I. 緒論

東武 李濟馬(1837 - 1900)는 歷代 醫家 중 張仲景, 朱肱, 許浚의 공로를 으뜸으로 기리면서 李梴, 龔信

\* 교신저자: 정창현,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37, jeongch@khu.ac, kr

의 업적 또한 함께 論하였다. 東武公은 기존의 한의학 이론들을 계승하면서 公의 독창적인 四象醫學의 人 觀點에서 기존 이론들을 재정리하고 발전시켰으며, 許浚이 『東醫實鑑』에서 精氣神 중심의 醫學精神으로 形氣論의 形象醫學을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醫學精神을 계승하여 人性과 人形의 形象觀<sup>1)</sup>에 의한

1)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4統에서 “天生萬物, 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

形心論의 形象醫學의 觀點에서 四象人의 知行之象, 體形氣像을 觀察하는 方法論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sup>2)</sup>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을 통하여 天과 人의 關係를 存在論(性)과 當爲論(命)의인 측면에서 性命에 관한 存在構造를 四象構造原理로써 밝혔으며, 「四端論」을 통하여 人간의 心理와 生理의 측면에서 性情과 心·氣의 生成作用에 관하여 論하였다. 즉 性命은 存在構造的 입장, 體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면 性情은 生成變化的 作用的 입장, 用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다.<sup>3)</sup> 본 論文은 性命의 存在構造를 바탕으로 주어진 性情의 作用 變化가 ‘太少陰陽人의 臟腑大小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肺脾肝腎의 哀怒喜樂之氣는 어떻게 發用되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위해 性情과 哀怒喜樂之氣를 중심으로 『東醫壽世保元』 총론에 해당하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과 『格致藁』, 『東醫壽世保元草藁』를 근거로 연구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少陰陽人의 臟腑大小를 형성하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人稟臟理 有四不同’ 이외의 조문에서는 모두 哀怒喜樂의 性情으로 일관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哀怒喜樂之情에 의해서 四臟이 손상되는 기전에 있어서 太陽人의 怒情은 肝을, 少陽人의 哀情은 腎을, 太陰人의 樂情은 肺를, 少陰人의 喜情은 脾를 손상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본 論文은 바로 이 부분에 의문을 갖고 출발하였다. 哀情은 上焦에 배속된 情이고, 怒情은 中上焦, 喜情은 中下焦, 樂情은 下焦에 배속

된 情인데 왜 하필이면 哀情에 의해 下焦 腎이 손상되고, 怒情에 의해 中下焦 肝이, 喜情에 의해 中上焦 脾가, 樂情에 의해 上焦 肺가 손상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哀怒喜樂之氣의 時空間的인 기운의 運動 방향 및 運動의 출발점과 귀착처를 설정하여 위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肺脾肝腎의 運動을 哀怒喜樂之氣의 升降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性과 情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틀린 점을 발견하고 다시 『東醫壽世保元』을 숙독하는 과정에서 이미 「性命論」과 「四端論」에서 逆順의 개념으로 性을 順, 順動之氣로, 情을 逆, 逆動之氣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逆順의 개념을 바탕으로 內外의 관점에서 性情의 기운의 흐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性氣, 情氣의 升降운동에 따라 太少陰陽人의 臟腑大小가 영향 받는 기전을 설명하였다.

## II. 本論

### 1. 『東醫壽世保元』에서의 性과 情에 대한 概念

1) 기존 儒學에서의 性情 概念과의 비교

(1) 性에 대한 철학사적 의미의 변천

性에 대한 언급은 孔子의 “性相近也, 習相遠也(性은 서로 가까우나 그 性을 같고 닦아나가는 習의 과정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라는 설명이 그 시초로 보여지며, 이후 『中庸』에서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爲教(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 性이라 하고, 性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일컬어 道라 하며, 그 道를 계속 닦아 나아가는 것을 일컬어 教라 한다.)”라 하여 性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性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孟子의 性善說과 荀子의 性惡說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性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宋代 이후의 性理學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性理學의 대표격인 朱子가 性을 天命之性과 氣質之性으로 구분하였는데 性이 天理로 善하지 않

謂之太極.”이라 하여 萬物의 존재구조를 物과 則으로써 삼는데, 人간의 존재는 人形이 物으로써, 人性이 法則으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여 內經이나 東醫寶鑑에서 人간을 파악한 氣裏形表의 形氣論과는 다르게 東武公은 形心論을 중심으로 人체를 파악한 것이다. 人形과 人性이 太極을 이루고 있음을 제시한 뒤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라 하여 人性의 쓰임은 知로써, 人形의 쓰임은 行으로써 드러난다고 하여 知行이 兩儀의 陰陽이 된다고 설하였다.

2) 宋一炳.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우리 民族의 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 16(3). pp. 2-5.

3) 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 -四端論에 관하여-. 韓國東西哲學研究會. 1999. 18(1).

은 것이 없다는 것이 天命之性이고, 氣質之性은 理와 氣가 섞인 것으로 氣의 맑고 탁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善하고 惡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性者, 心之理. 情者, 性之動. 心者, 性情之主.”라고 하여 性を 情과 대비하여 정의하여 기존에는 性を 理의 입장에서만 보던 것을 性에도 理와 氣의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sup>4)</sup>

(2) 朱子와 東武公의 性情에 대한 概念 비교

기존의 儒學에서는 性은 理로서 이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날 때에는 仁義禮智로 표출되는 반면, 情은 氣의 변화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상태의 표현으로 喜怒哀樂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性과 情을 理와 氣, 그리고 未發之性과 已發之性을 나누어 인식하였다. 그러나 東武公은 기존 儒學에서의 性情觀과는 다르게 心을 理로 규정하고 仁義禮智를 담고 있는 肺脾肝腎에 의해 드러나는 喜怒哀樂을 氣로 규정하여 외부세계로부터 감각기관인 四官을 통해 肺脾肝腎으로 歸體되어 들어오는 氣를 順動之氣인 性으로, 肺脾肝腎으로부터 몸을 통해 發用되어 나가는 氣를 逆動之氣인 情으로 인식하였다. 朱子의 표현<sup>5)</sup>에 의하면 일단 喜怒哀樂을 情이라 규정한 다음 그 情이 未發한 상태를 性이라하여 喜怒哀樂의 기운이 未發하였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中이라 표현하였고 中이란 天下之大本으로 天下의 理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道의 本體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發而皆中節’에 대해서는 喜怒哀樂의 情 중에서도 바르게 發하여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로 이것을 和라 하고, ‘天下之達道’라 하여 喜怒哀樂之氣 중에서 性을 그대로 좇아 따르는 것을 道의 用이 된다고 하였다. 즉, 朱子는 性을 道의 體로, 情

을 道의 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性이 極하면 情이 動한다는 相成·相資를 설명하고 난 뒤 太陽·少陽人은 과도한 哀怒를 恒戒<sup>6)</sup>하라고 하였고 太陰·少陰人은 과도한 喜樂을 恒戒하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도 “太陽人, 恒戒怒心哀心. 少陽人, 恒戒哀心怒心. 太陰人, 恒戒樂心喜心. 少陰人, 恒戒喜心樂心.”이라 하여 未發한 喜怒哀樂<sup>7)</sup>을 항상 경계(恒戒)하여야 할 대상에 性과 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어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 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 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라 하여 ‘喜怒哀樂이 未發한 상태에서도 性情의 움직임은 항상 경계하여야 中에 가까워질 수 있고, 이미 喜怒哀樂이 發한 상태라도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면 절도에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을 보면 東武公은 朱子와 같이 未發, 已發을 기준으로 性情을 구분하여 性은 動하지 않는 理致, 즉 未發한 상태이고, 情은 已發하여 氣運의 變動이 생긴 현상화된 상태라는 개념이 아니라 性과 情이 모두 理氣의 차원에서 未發한 상태일 수도, 已發한 상태일 수도 있는 개념으로 性情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sup>8)</sup> 이것은 情이 情氣로써 작용하여 臟의 기운이

6) 恒戒 : 恒은 항상 (항), 戒는 경계할 (제)로서 경계의 의미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나 사건을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의미로 恒戒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고 마음을 쓴다는 의미이다.  
 7) 여기에서 ‘未發한 喜怒哀樂’이란 朱子의 天命之性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東武公의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란 표현 중 性情으로서의 喜怒哀樂이 표출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이다.  
 8) 格致彙 卷之二 反誠箴 乾箴 下載 4條目 에서 “既有來往立臨之命, 則亦自有不來往不立臨之命也, 既有喜怒哀樂已發之性, 則亦自有喜怒哀樂未發之性也. 不來往不立臨之命, 豈非處獨之命乎? 獨之所性, 孰如戒愼恐懼漸次以中乎? 是故, 喜怒哀樂者, 來往立臨之間, 與人相接之性, 而有節不節也. 戒愼恐懼者, 不來往不立臨時, 自己獨得之性, 而有中不中也.”라 하여 往來立立이 없는 自己獨得之性은 喜怒哀樂未發之性이라하였고 往來立立의 상황에서의 與人相接之性은 喜怒哀樂已發之性이라 규정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草藥原人 第三統에서는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性理之偏行之, 而察中奪則求也, 情欲之偏行之, 而察節奪則得也. 欲求性理之偏者, 富貴顯達, 雖則求之, 而

4) 方立天. 중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서울. 예문서원. 1998. pp. 133-141.  
 5) 中庸集註에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 하였으며, 그 注에서 “喜怒哀樂, 情也. 其未發則性也. 無所偏倚故, 謂之中. 發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戾故, 謂之和.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皆由此出, 道之體也. 達道者, 循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由, 道之用也. 此言性情之德, 以明道不可離之意.”라 하였다.

發用되어지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물론 性 또한 性氣로써 작용하여 체내 기운의 변화를 초래하여 臟에 기운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東武公은 性情을 逆順의 개념으로 보아서 哀怒喜樂이 四臟에 자리 잡기 전 天機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順動之氣인 性으로, 四臟에서부터 몸을 통해 밖으로 행해지는 과정을 逆動之氣인 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9)</sup>

## 2) 『東醫壽世保元』에서의 性情

### (1) 性과 情의 관계(天·人의 관계)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人之耳目鼻口, 天也.”라 하여 天機를 살피는 耳目鼻口를 天이라 규정하였으며, “人之肺脾肝腎, 人也.”라 하여 人事를 행하는 肺脾肝腎을 人이라 규정하고 있다. 耳目鼻口는 聽視嗅味之力으로 天機를 받아들여 心을 거쳐 四臟에 性을 注入시키는 역할을 하며, 肺脾肝腎은 臟氣를 소모시키면서 人事를 情으로써 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性은 先天的으로 稟賦받은 고유의 자질일 것이며, 情은 사람이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면서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일 것이다. 『東醫壽世保元草藁』에서는 太少陰陽人의 性情에

不可以汲汲也。貧賤困窮，雖則達之，而不可以戚戚也。情欲之偏者，財權酒色，雖則難節，而不可以不節也。語謀行正，雖則難正，而不可以不正也。”라 하여 喜怒哀樂之未發을 健剛柔順이라 이름하여 性으로 설명하였으며, 喜怒哀樂之已發을 情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면 東武公도 東醫壽世保元 이전의 저술인 格致藥과 東醫壽世保元草藁에서는 未發之性을 性으로 已發之性을 情으로 개념을 잡고 있었으나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서 性情을 모두 未發할 수도 있고 已發할 수도 있는 理氣의 입장에서 개념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格致藥과 東醫壽世保元草藁에서도 喜怒哀樂에 대한 未發과 已發의 기준은 朱子의 그것과는 틀린데, 朱子는 未發을 理의 차원에서, 已發을 氣의 차원에서 봤던 것에 비하면 東武公은 未發과 已發을 모두 氣의 차원에서 해석하여 未發한 상태는 타인이나 物과의 접촉 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운의 변화로 보았으며, 已發한 상태는 타인이나 物과의 접촉이 있어 겉으로 기운의 변화가 표출되는 상태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9) 逆順에 대한 개념과 順動之氣, 逆動之氣에 대한 설명은 본 論文의 本論 1. 2) (2) 天機(好善)와 人事(惡惡)에 있어서의 順逆관계와 本論 1. 2) (3) 性情과 順動之氣·逆動之氣의 관계에서 상술하고 있다.

대한 설명을 “太陽人, 哀局大而怒器直, 哀大者仁也, 怒直者義也.……10)”라 하였으며, 그 앞 문장에서 “事務衆同也, 籌策由己也.……, 衆同者天也, 由己者人也. 天者天下所成之局也, 人者一人所作之器也. 天下所成者, 其理擴而難周, 明知其理之善者, 德也, 性也. 一人之所作者, 其欲謀膠着而易惑, 誠行其欲之正者, 道也, 命也.”라 하여 『東醫壽世保元草藁』 구조<sup>11)</sup> 속에서

10) 각 체질별 性情에 대해 설명을 한 본 조문에서 性은 大하고 情은 直하다고 표현하였으며, 性이 大한 것을 仁이라 하고, 情이 直한 것을 義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大의 의미는 說文解字注에서 “天大, 地大, 人亦大焉. 象人形.”이라 하였고 그에 대한 注에 “老子曰, 道大, 天大, 地大, 人亦大.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按天之大, 則先造大字也. ……大文則首手足皆具, 而可以參天地. 是爲大.”라 하여 大는 사람이 天地의 法道를 좇아 형성된 것을 형상화 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즉 위 조문에서 哀局大, 怒局大등으로 표현된 ‘大’의 의미는 天地의 외부세계를 향해 열려진 기관(耳目鼻口)을 통해 넓고 크게 받아들이는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 說文解字注에서 仁에 대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그 자체를 仁이라 하였다. 즉, 性을 설명하는데 쓰여진 大와 仁의 개념은 외부세계를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위 인간관계 및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好善하는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표현하고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直은 ‘곧다, 바로잡다, 일부러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법도에 맞게 무언가 이루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義는 ‘옳다, 의롭다’란 뜻으로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실천하는 덕목이다. 情이 올바르게 선별되어 행해지게 된다(直)면 義에 합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情을 설명하는데 쓰여진 直과 義의 개념은 보다 실천적인 의미로 性命論에서 설명하고 있는 正命之道에 가까워 惡惡의 기능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 65 인용. 이 부분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東醫壽世保元草藁와 東醫壽世保元에서의 구조적인 차이는 東醫壽世保元草藁의 내용이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는 衆同에서 各立으로 바뀌고, 天의 개념이었던 것이 人으로 바뀌게 되며, 天의 자리에는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이 추가된다. 둘째, 籌策, 謀猷, 才幹, 便宜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으로 바뀌고, 人의 개념이 性(天人性命 중 性)으로 바뀌었다. 셋째, 識見, 威儀, 才幹, 方略의 命은 草本卷에서 없는 개념으로 東醫壽世保元에 새로 추가되었다. 넷째, 才幹은 草本卷에서는 人에 속해 있다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命에 속해졌다. 다섯째, 草本卷 당시까지는 天人構造만 있었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 性命의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天은 人으로, 人은 性으로 바뀌고, 天과 命은 새로 추가되었

天의 개념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를 설명하면서 “衆同者天也, 天者天下所成之局也.” 즉, ‘天이라는 것은 하늘(天)의 이치에 따라 이루어진 큰 틀이다.’라 하여 局은 天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人의 개념인 籌策, 謀猷, 材幹, 便宜를 설명하면서 “由己者人也, 人者一人所作之器也.” 즉, ‘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릇이다.’라 하여 器는 人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天下所成者’는 廣博한 理致로서 두루 알기 어려우나 이를 명확히 알고 잘 따르는 것을 德이라하고, 性<sup>12)</sup>이라 규정하면서 바로 다음문장에서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之性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一人之所作者’는 하고자하는 바 욕구가 慾心에 의한 謀(謀)와 엉겨 붙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욕인지 의혹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몸으로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욕구를 바르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道라 하고, 命이라 규정하면서 바로 다음문장에서 太少陰陽人의 哀怒喜樂之情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즉, 哀怒喜樂之性은 局, 天의 개념을 따라 天의 기운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순리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哀怒喜樂之情은 器, 人의 개념을 따라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을 가려내면서 몸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天機(好善)와 人事(惡惡)에 있어서의 順逆 관계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耳目鼻口는 觀於天하고, 肺脾肝腎은 立於人한다.’라고 한 뒤 ‘귀(耳)는 善聲을 좋아하고, 눈(目)은 善色을 좋아하며, 코(鼻)는 善臭를 좋아하고, 입(口)은 善味를 좋아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善聲은 귀에 順하고, 善色은 눈에 順하며, 善臭는 코에 順하고, 善味는 입에

다.

12) 여기에서 天下所成者로서의 性은 아래 一人所作者로서의 命과 대구가 되는 性으로 性情의 性과는 틀린 性命으로서의 性이다. 性情의 性은 天機를 耳目鼻口의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설명된 性이며, 性命의 性은 至性之德을 領臆臍腹의 行其知로써 明辨하여야하는 天人性命구조 속에서의 性인 것이다.

順하다.’고 하였다.<sup>13)</sup> 즉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은 天機를 살핍<sup>14)</sup>에 善한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게 적절한 것을 순응하여 받아들여 同一化<sup>15)</sup>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하늘(天)의 기운을 耳目鼻口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順<sup>16)</sup>으로 작용하여 자연의 순리를 내 몸 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耳目鼻口는 觀於天하고, 肺脾肝腎은 立於人한다.’라고 한 뒤 ‘肺는 惡聲을 싫어하고, 脾는 惡色을 싫어하며, 肝은 惡臭를 싫어하고, 腎은 惡味를 싫어한다.’고 한 다음에 ‘惡聲은 肺에 逆하고, 惡色은 脾에 逆하며, 惡臭는 肝에 逆하고, 惡味는 腎에 逆한다.’고 하였다.<sup>17)</sup> 肺脾肝腎은 원래 人事를 行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聲色臭味로 표현한 것은 天機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8)</sup> 天機의 聲色臭味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함에 耳目鼻口로써 하지 않고 肺脾肝腎의 四臟으로 설명한 것은 天機 중에서도 내게 맞지 않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거부하고 밀쳐내는 의

1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領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善聲, 順耳也, 善色, 順目也. 善臭, 順鼻也. 善味, 順口也. ……人之耳目鼻口, 好善, 無雙也.”라 하였다.

1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領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라 하였다.

1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時, 大同也. 事務, 各立也. 世會, 大同也. 交遇, 各立也. 人倫, 大同也. 黨與, 各立也. 地方, 大同也. 居處, 各立也. 大同者, 天也. 各立者, 人也.”라 하였다.

16) 逆順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본 論文의 本論 1. 2) (3) 性情과 順動之氣·逆動之氣의 관계에서 周易의 逆順概念을 들어 설명하였다.

1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領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惡聲, 逆肺也, 惡色, 逆脾也. 惡臭, 逆肝也. 惡味, 逆腎也. ……人之肺脾肝腎, 惡惡, 無雙也.”라 하였다.

18)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은 天體의 입장에서 세상의 구조를 四象적으로 存在(性)와 當爲(命)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人·用의 입장에서 쓰여진 四端論과는 틀리게 肺脾肝腎을 人事를 行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天機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로 설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肺脾肝腎 四臟의 기능은 내 몸 안의 기운을 운용하여 밖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으로 天機 중에서도 자신의 조건에 적절치 못한 것은 취사선택하여 거부할 때 발휘되는 것이고 이러한 작용을 逆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3)性情과 順動之氣·逆動之氣의 관계

위에서 天機를耳目鼻口가 살피면서 好善으로 順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性'이 작용하는 것으로, 人事를 肺脾肝腎이 행하면서 몸으로 資業(命)을 이루어 내는 과정과 자신에게 맞지 않는 天機를 惡惡으로 逆하게 거부하는 과정을 '情'이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 順動과 逆動의 내용이 나오는데 順動之氣<sup>19)</sup>와 逆動之氣<sup>20)</sup>의 逆과 順은 氣運의 升降 방향에 있어서의 逆順을 뜻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인체 生理에 도움이 되는 것을 順, 방해가 되는 것을 逆으로 표현한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도 있으며, 또 보다 理致적인 측면에서 逆順을 살펴보면 외부세계(天)로부터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順, 체내(臟)로부터 發用되어 나가는 부분을 逆<sup>21)</s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順逆'에 대한 字意를 『周易』에서 살펴보면 『周易』 「說卦」 3章에서 “數往者是 順하고, 知來者是 逆하니, 是故로, 易은 逆數也.”라고 하였는데 易理에 있어서 '順'이란 時間的으로는 未來에서 過去를, 空間的으로는 上(天)에서 下(地)를 志向하는 作用性을, 象數學的으로는 9에서부터 1로 統一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逆'이란 時間的으로는 過去에서 未來로, 空間的으로는 下에서 上으로 志向하는 作用性을, 象數學的으로는 1에서부터 9로 發展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마치 陰陽이 上升·下降하여 交流 合德하는 것과 같다.<sup>22)</sup>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을 逆順의 개념으로 다시 살펴보면 天機는 順으로, 그리고 人事는 逆으로 작용하는데<sup>23)</sup> 耳目鼻口를 통해 天理를 받아들여 性으로써 太極之心을 이루고 여기에서 性氣가 四臟으로 注入되는 과정을 天機와 性이 작용하는 것으로, 四臟의 힘으로 人事를 행하는 과정을 情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天으로부터 人心으로 그 天理之變化의 理致가 부여되는 과정(性)이 順인 것이며, 人身의 四臟에서 四臟之氣의 활동으로 人事를 행하는 과정(情)이 逆인 것이다. 그러므로 天理로부터 理致를 부여받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性氣는 順動之氣로써 작용하고, 人身의 四臟으로부터 발동하여 哀怒喜樂之情이 걸어서 드러나는 氣運의 운동은 逆動之氣로써 작용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哀怒喜樂之氣의 順動·逆動에 대한 개념으로써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이라 하였다.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竝於下則, 脾肺傷.”이라 하였다.

22) 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 -性命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18(1).  
23) 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 -性命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18(1).  
24) 본 조문에서 哀怒喜樂之氣가 順動하면 順而上升, 順而下

1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이라 하였다.  
2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竝於下則, 脾肺傷.”이라 하였다.  
21) 逆順의 의미를 黃帝內經·素問 70篇 五常政大論에서 神機之物과 氣立之物을 대비하여 설명한 것으로 살펴보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植物과 같은 氣立之物의 경우에는 기후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存亡이 결정되나 동물과 사람과 같이 五臟이 있는 神機之物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五運을 발휘하여 외부환경에 거슬러(逆)서 활동하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람이 四臟과 心의 힘으로써 人事를 행하고 天機를 받아들인데 자신의 입장에서 외부환경의 조건을 취사선택하여 順의 작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逆의 작용으로 거슬러서 배척하기도 하는 것이다. 中央之太極으로서의 心이 心慾에 가리워지지 않고 四臟의 仁義禮智가 제대로 擴充이 된다면 그 逆하는 惡惡의 기능도 올바르게 발휘되어 人事를 行할 때 敏達, 勇統, 雅立, 恒定할 수 있을 것이나 心慾에 의해 四臟의 仁義禮智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暴發, 浪發하게 되는 것이다.

順動之氣는 性氣로서 天機로부터 心이 부여받은 기운을 四臟으로 주입할 때 나타나는 기운의 변화로 哀怒의 性氣의 흐름은 陽氣로서 上升하여 기운이 上焦(肺)와 中上焦(脾)에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喜樂의 性氣는 陰氣로서 下降하여 기운이 下焦(腎)와 中下焦(肝)에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順動之氣인 性氣는 四臟을 益盛케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哀怒喜樂之氣를 陰陽의 上升, 下降의 기운으로 나누어 天의 기운을 順의 작용으로 心이 받아서 체내에서 順動之氣로서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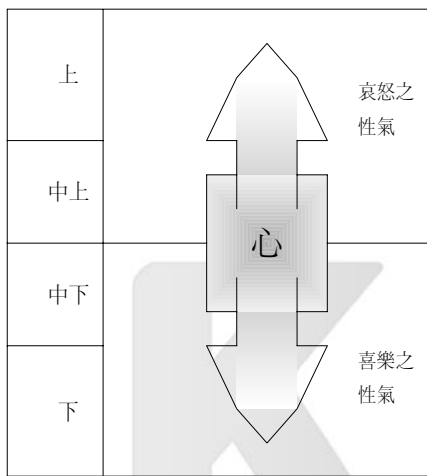


표 1. 順動之氣로서의 哀怒喜樂之性氣의 운동

逆動之氣는 情氣로서 四臟으로부터 身이 人事를 행할 때 소모되는 기운으로 哀怒의 情氣는 上升하는데 下焦·中下焦에서부터 기운을 끌고 위로 올라가므로 下焦(腎), 中下焦(肝)의 기운을 소모하게 되며 喜

降하게 되고, 哀怒喜樂之氣가 逆動하면 暴發而竝於上, 浪發而竝於下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順하게 上升하고 下降하게 된다는 의미는 완전한 생리적인 기운의 흐름으로 升降이 잘 이루어진다는 순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逆動하여 竝於上, 竝於下하게 된다는 의미는 그 기운의 흐름이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지나쳐서 升降의 한쪽 운동이 고착되어 순환성을 잃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樂의 情氣는 下降하는데 上焦·中上焦에서부터 기운을 끌고 아래로 내려가므로 上焦 肺局과 中上焦 脾局의 기운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sup>25)</sup> 그러므로 逆動之氣인 情氣는 四臟을 益削케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哀怒喜樂之氣를 陰陽의 上升, 下降의 기운으로 나누어 四臟의 기운이 逆하게 작용하여 四臟에서 逆動之氣로서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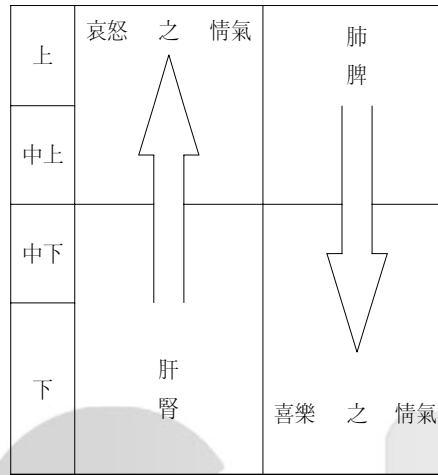


표 2. 逆動之氣로서의 哀怒喜樂之情氣의 운동

性으로서의 哀怒喜樂은 耳目鼻口가 天機를 察하여 心으로 받아들이고 四臟에 축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自然의 性品, 즉 天性을 말한다. 때문에 性이 氣로서 작용하여 四臟으로 주입될 때는 대체로 哀怒之氣는 發越而上騰하고 喜樂之氣는 緩安而下墜하여 順動함으로써 해당 臟局을 益盛케 하는 역할<sup>26)</sup>을 하

2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之氣逆動則, 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逆動則, 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則, 脾肺傷.”이라 하였다.

2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이라 하였다.

나 만약 性氣가 心慾에 의해 그 활동이 과도해져서 極에 달하면 “哀性極則, 怒情動.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怒性極則, 哀情動.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喜性極則, 樂情動. 喜極不服則, 侈樂無厭.”, “樂性極則, 喜情動. 樂極不成則, 喜好不定.”하는 것처럼 情을 動하게 한다.

情으로서의 哀怒喜樂은 促急한 성질을 가지며 肺脾肝腎이 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人事를 行할 때 肺脾肝腎에서 소모되면서 發用되어지는 기운의 운동 상태를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逆順의 개념상 情은 肺脾肝腎 四臟에서 기운이 소모되면서 行人事의 目的性을 갖고 作爲의으로 나가는 기운이므로 促急한 성질을 갖게 되는 逆動之氣이며 哀怒의 上升하는 陽氣가 작용할 때에는 下焦 肝腎의 기운이 소모되고, 喜樂의 下降하는 陰氣가 작용할 때에는 上焦 肺脾의 기운이 소모되어지게 된다<sup>27)</sup>. 만약 과도한 情의 暴發, 浪發<sup>28)</sup>이 유발되었을 경우, 哀怒의 陽氣가 暴發하였을 때에는 下焦 肝腎의 기운을 끌고 위로 올라가게 되며, 喜樂의 陰氣가 浪發하였을 때에는 上焦 肺脾의 기운을 끌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情促急의 단계에서는 哀情은 腎, 怒情은 肝, 喜情은 脾, 樂情은 肺의 기운을 소모하나 暴發·浪發하는 과도한 情의 활동에서는 哀情은 腎, 怒情은 肝, 喜情은 脾, 樂情은 肺를 직접 손상시키게 된다. 情은 天機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性과는 달리 사람이 관계 속에서 무언가 人爲의으로 行하면서 이루어내는 氣의 활동이므로 氣를 發動시키는 단계에서부터 促急한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며<sup>29)</sup>, 이미 大小 徧及이 설정된 상태의 四臟에서 發動되어지는 기운이어서 發而皆中節하는 和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情이 氣로서 작용할 때는 哀怒之氣 暴發而并於上, 喜樂之氣는 浪發而并於下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sup>30)</sup>

따라서 哀怒喜樂의 順動之氣는 天機로부터 耳目鼻口를 통해 心으로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고 心으로부터 性氣가 四臟에 주입되므로 臟器를 더욱 盛하게 하고, 逆動之氣는 四臟에서부터 發動하여 人事를 행하면서 소모되므로 臟器를 더욱 削하게 한다.

(4)性情의 病理變化 양상으로 본 性과 情의 작용 방향성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陽人은 暴怒와 深哀가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고, 少陽人은 暴哀와 深怒가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太陰人은 浪樂과 深喜가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고, 少陰人은 浪喜와 深樂이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sup>31)</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哀怒喜樂之性은 과도해지면 안으로 깊게 深着하여 병들게 되고, 哀怒喜樂之情은 과도해지면 陽情은 暴發하고 陰情은 浪發하는 양상으로 바깥으로 격심하게 표출되어진다는 것이다. 즉, 性은 그 방향성이 天機를 好善의 입장에서 順하게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과도해지면 안으로 깊게 深着해지는 것이며, 情은 그 방향성이 四臟의 기운을 惡惡의 입장에서 逆하게 외

27)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竝於下則, 脾肺傷.”이라 하였다.

28) 暴發과 浪發에 대한 의미는 哀怒之氣는 陽氣로서 갈등상황에 대해 배척하는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逆動하는 기체가 강하게 되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며 그에 대한 에너지는 바로 곧 소모가 될 수 있을 것이나, 喜樂之氣는 陰氣로서 대상에 대한 친화성을 기반으로 그에 대한 집착의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逆動하는 기운이 강하다 하더라도 哀怒의 감정처럼 순간적으로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치 물결치듯이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나타날 것이다.

29) 情은 四臟이 人事를 行하면서 惡惡의 입장으로 逆하게 쓰여지는 기운인 逆動之氣이므로 天機를 받아들이는 性의 順動之氣와는 달리 心에 의해 取舍選擇되어지고 四臟의 기운을 發用시켜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므로 처음부터 作爲의이며, 促急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게 되며, 心慾의 정도에 따라 促急과 暴發, 浪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3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p. 80.

3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라 하였다.

부세계로 發用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과도해지면 바깥으로 暴發·浪發하는 양상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性情의 相成·相資 상호관계

다음으로 性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언급된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에 대한 해석을 잠깐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天稟이 性에 의해 이미 정해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天稟으로 정해진 것 이외에 또한 長短이 있어 天稟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情에 의해 發用되어지는 人事를 제대로 닦느냐 못 닦느냐에 따라서 性命중 命이 기울어지기 때문이다.’<sup>32)</sup>라고 하였으니, 先天的으로 稟賦 받은 것은 性이고, 稟賦 받은 性을 바르게 실천하면서 命을 이루어내는 것은 人事를 行하는 情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性은 天·人 중에서 天에 대한 개념으로서 喜怒哀樂之未發之性으로 天命으로서의 人心을 그대로 본받은 바이기 때문에 太少陰陽人이 哀性遠散하고, 怒性宏抱하고, 喜性廣張하고, 樂性深確한 것에 대한 전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喜怒哀樂之情이 促急하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東醫壽世保元』 원문 내에서도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太陽人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怒情이 促急하다는 의미와, 太陽人의 哀性이 遠散하기 때문에 怒情이 자연히 促急해진다는 의미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이라 하여 ‘哀氣에 의해 怒氣가 이루어지고, 怒氣에 의해 哀氣가 이루어지며, 喜氣가 樂氣를 돕고, 樂氣가 喜氣를 돕는다. 上升하는 기운은 上升하는 기운끼리, 下降하는 기운은 下降

하는 기운끼리 서로 成하고 資하기 때문에 先天的으로 哀性이 遠散(極)하면 마땅히 怒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며, 怒性이 宏抱(極)하면 마땅히 哀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고, 樂性이 深確(極)하면 마땅히 喜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며, 喜性이 廣張(極)하면 樂情 또한 크게 발휘될 것(動)이다.’라고 하였다. 上升하는 哀怒의 기운은 서로 相成하고, 下降하는 喜樂의 기운은 서로 相資(相資)이 된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언급된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에 대한 내용은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하기 때문에 怒情이 促急해지게 되며,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하기 때문에 哀情이 促急해지게 되고,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하기 때문에 樂情이 促急해지게 되며,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하기 때문에 喜情이 促急해지게 된다.’라고 해석 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相成·相資에 대한 원리를 上下表裏의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해 보면 위로 向上하여 오르는 陽氣인 哀氣와 怒氣, 아래로 向下하여 내려가는 陰氣인 喜氣와 樂氣는 上下로의 방향지향성에 따라 陰陽이 나뉘어지고<sup>33)</sup> 陽氣는 陽氣끼리, 陰氣는 陰氣끼리 同氣相求하여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같은 방향의 기운끼리는 서로 도움이 되고 상호 전환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極變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자면 하나의 기운이 極한 상황에까지 이르면 전적으로 다른 성질의 기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相成함으로써 기운이 상호 전환이 가능한 哀怒之氣의 陽氣를 다시 表裏에 의해 陰陽으로 나누어보면 기운이 안(裏)으로 작용하는 哀氣는 陽中之陰으로, 기운이 밖(表)으로 작용하는 怒氣는 陽中之陽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相資함으로써 기운이 상호 전환이 되는 喜樂之氣의 陰氣를 다시 表裏에 의해 陰陽으로 나누어보면 기운이 겉(表)에서 작용하는 喜氣는 陰中之陽으로, 기운이 속(裏)에서 작

3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之已定之外, 又有短長而, 不全其天稟者則, 人事之修不修而, 命之傾也. 不可不慎也.”라 하였다.

3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哀怒之氣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이라 하였다.

용하는 樂氣는 陰中之陰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다. 相成·相資는 陽性的의 기운인 哀氣와 怒氣, 陰性的의 기운인 喜氣와 樂氣가 表裏관계로 서로 전환되는 陰極生陽, 陽極生陰의 과정인 것이다.

向上하는 陽性的의 기운인 哀氣와 怒氣는 각기 哀氣는 겉으로 표출되지 않으면서 안으로 깊게 작용하는 성질이 있으며, 怒氣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다. 陽氣인 哀怒之氣를 서로 비교하면 哀氣는 裏, 怒氣는 表에서 작용하며 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哀氣는 더욱 안으로 깊이, 怒氣는 더욱 바깥으로 멀리 나아가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운이 極에 달하게 된 경우<sup>34)</sup>에는 表裏가 極變하게 된다. 기운이 안으로 들어와 수렴되지만 하다보면 급기야 폭발적으로 바깥으로 터져나갈 것이며, 기운이 바깥으로 계속 발산되어 나가지만 한다면 결국 안에서는 다시 수렴되는 기운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四端論」에서는 ‘太陽人의 哀性이 極하여 不濟하게 되면 忿怒의 감정이 바깥으로 激하게 드러나게 되며, 少陽人의 怒性이 極하여 이겨내질 못한다면 悲哀의 감정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sup>35)</sup>라고 하였다. 즉 陽性的의 기운이 表에서 極하게 되면 裏氣를 動하게 되고, 裏에서 極하게 되면 表氣를 激動시키게 되는 것이다.

向下하는 陰性的의 기운인 喜氣와 樂氣는 각기 喜氣는 겉으로 표출되어 남과 함께하는 감정 상태이며, 樂氣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안으로만 갈무리되어 혼자 그 감정 상태를 즐기는 것이다. 陰氣인 喜樂之氣를 서로 비교해보면 喜氣는 陰氣 중에서도 表로 작용하고, 樂氣는 陰氣 중에서도 裏로 작용하는 성질이

있어 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喜氣는 점점 넓게 퍼져갈 것이며, 樂氣는 점점 깊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 기운이 極에 달하게 된 경우에는 表裏가 極變하여 喜氣의 廣張하게 퍼져나가기만 하던 기운은 안으로 깊고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樂氣의 深確한 기운은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불안정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四端論」에서는 ‘太陰人의 喜性이 極하여 그 기운에 승복되지 못한다면 侈樂을 부림에 만족(厭)이 없게 되며, 少陰人의 樂性이 極하여 그 樂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겉으로 喜好의 감정이 불안정하게 변덕을 부리는 양상으로 보이게 된다.’<sup>36)</sup>라고 하였다. 즉 陰性的의 기운인 喜氣가 表에서 極하게 되면 裏氣인 樂이 형성되고, 裏에서 樂氣가 極하게 되면 表氣인 喜가 드러나면서 浮動하게 되는 것이다.

또,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라 하여 ‘太陽人의 脾는 交遇에 能히 勇統하며, 肝은 黨與에 能히 雅立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太少陰陽人의 肺脾肝腎이 人事를 行하는 能力은 耳目鼻口가 天機를 察하는 능력과 같이 天理의 변화에 따라 性氣의 운동 변화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情氣의 운동변화까지도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

性情에 대한 개념을 결론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性은 天理之變化의 理致가 그대로 人身의 心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이 性氣로 작용하여 四維之四象인 四臟으로 氣가 注入되며 이때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 양상을 哀怒喜樂之性이라 하고, 性에 의해 四臟에 축적된 氣가 發用하면서 외부 人事에 작용을 할 때 情氣로 작용하면서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 양상을 哀怒喜樂之情이라 한다. 즉 사람의 臟理構造를 형성하고, 그

34) ‘極’의 의미는 어느 한가지의 성질 및 작용이 끝에 도달한다는 의미와 그 극점에 도달하여 그 성질 및 작용이 다하여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極’이란, 性이 好善하는 입장에서 順하게 받아들이는 작용이 타인이나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善한 의지가 좌절되고 내 자신의 입장이 앞선 惡惡의 기능으로 情이 逆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3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陽人, 哀極不濟, 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 則悲哀動中……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라 하였다.

3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少陰人, 樂極不成, 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 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라 하였다.

구조를 바탕으로 작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성이 보다 先天·體에,情有 보다 後天·用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太少陰陽人の性情과 哀怒喜樂 四氣와의 관계

### 1) 肺脾肝腎의 四臟之氣와 性情의 哀怒喜樂之氣와의 관계

#### (1) 肺脾肝腎의 四臟之氣와 性情의 哀怒喜樂之氣와의 상관관계

東武公은 人體를 네 가지 기운 屬性의 分類 概念<sup>37)</sup>에 따라 上, 中上, 中下, 下焦의 四焦로 나누어 파악하였는데, 이는 上下의 高低에 따라 단순히 部位의 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氣의 四象類型의 分化象으로 특징되어지는 氣의 部位의 표현인 동시에 四部의 생리기능의 속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四焦에서 氣의 升降을 이루어내는 臟器는 肺脾肝腎이다. 肝肺는 氣液을 呼吸하는 門戶로서 肺는 呼하고, 肝은 吸하며, 脾腎은 水穀의 出納을 담당하는 府庫로서 脾는 納하고, 腎은 出한다.<sup>38)</sup> 즉 인체는 氣液代謝와 水穀代謝로서 기본적인 生命活動을 영위하며, 이러한 기능은 四臟, 즉 肺脾肝腎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四臟의 발현되는 氣의 속성은 肺氣는 直而伸하고, 脾氣는 栗而包하며, 肝氣는 寬而緩하고, 腎氣는 溫而畜한다.<sup>39)</sup>

37)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人體와 自然의 本質의인 變化를 五行法則을 근간으로 설명하였으나 東武公은 内部의 本質의인 變化는 觀察하기 힘든 觀念의인 대상으로 여겨 겉으로 드러난 기운 운동의 결과물인 形象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 五行이 아닌 四象으로써 自然을 觀察하고 人體를 설명한 것이다. 木火土金水의 五行은 氣의 시간에 따른 運動變化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도구라 한다면 木火金水의 四象은 五行의 운동변화가 이루어진 결과를 관찰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湧出, 分散, 收斂, 凝固의 기운의 속성을 대별하는 木火金水의 概念만이 形의 變化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운의 변화를 조율하는 土의 개념은 四象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라 하였다.

3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肺氣, 直而伸. 脾氣, 栗而包. 肝

肺腎은 口鼻와 前陰으로 開竅하고 있어 人體를 上下의 縱으로 引縮운동<sup>40)</sup>을 하는데 肺의 伸하는 작용은 金陰의 抑壓力을 기반으로 기운을 끈게 펼쳐내어 呼할 수 있으며, 腎의 縮하는 작용으로 기운을 안으로 쌓아 쥐어짜듯이 응축시켜 소변을 생성시켜 방광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哀怒喜樂之氣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肺에 작용하는 性情의 기운은 哀氣로써 哀氣는 안에서 작용이 과도해지면 밖으로 忿怒激外해지게되며 腎에 작용하는 性情의 기운은 樂氣로써 樂氣는 안에서 작용이 과도해지면 밖으로 喜好不定해지게 되는 裏에서 表로 전환되는 기운의 방향성을 갖는다. 脾肝은 天地之氣와 疏通할 수 있게 開竅된 통로가 없어 人體 내부에서 左右의 橫으로 收放운동<sup>41)</sup>을 하게 되는데 脾의 包하는 작용으로 外部로부터 기운을 포괄하여 끌어안듯이 納할 수 있으며, 肝의 緩하는 작용으로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체내에 조성하여 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哀怒喜樂之氣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脾에 작용하는 性情의 기운은 怒氣로써 怒氣는 밖으로 표출되는 작용이 과도하여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면 안으로 悲哀動中하게되며, 肝에서 작용하는 性情의 기운은 喜氣로써 喜氣는 겉으로 표출되어 여러 사람과 기쁨을 함께 하는 감정이나 이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인간관계의 매개체인 物慾에 집착하게 되어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고자하여 侈樂無厭해지게 되는 表에서 裏로 전환되는 기운의 방향성을 갖는다. 즉, 肺肝의 直伸, 寬緩시키는 작용으로 氣液을 呼吸할 수 있으며, 脾腎의 栗包, 溫蓄시키는 작용으로 水穀을 出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운의 방향성과 상응하는 性情 기운에 따라 肺氣는 哀氣의 直升, 脾氣는 怒氣의 橫升, 肝氣는 喜氣의 放降, 腎氣는 樂氣의 陷降으로 相互轉化되고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肺脾肝腎의 四臟之氣와 哀怒喜樂之氣 사이에는 서로 같은 속성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으나

氣, 寬而緩. 腎氣, 溫而蓄.”이라 하였다.

40)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五統에서 “肺腎之運轉, 一引而一縮, 任呼吸之貴者宜乎. 經其終始之貫串也.”라 하였다.

41)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五統에서 “脾肝之運轉, 一收而一放, 操唱和之機者宜乎. 緯其緊歇之範圍也.”라 하였다.

肺脾肝腎의 四臟之氣는 氣液의 呼吸과 水穀의 出納에 대한 作用개념이 확고하여 이를 人體 內에서의 變化하는 氣의 升降原理로써 表現해내기 위해 性情의 기운을 확충하여 哀怒喜樂之氣로써 表現한 것이라고 보여진다.<sup>42)</sup>

(2) 哀怒喜樂之氣의 屬性

肺脾肝腎의 四臟之氣는 人事를 行할 때 체내에서 기운을 發用하여 밖으로 드러낼 때 쓰여지는 기운으로 哀怒喜樂之情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으며, 기운의 升降 방향성에 있어서는 哀怒喜樂之性氣와 哀怒喜樂之情氣, 肺脾肝腎之氣 모두 같은 속성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四臟之氣와 哀怒喜樂之氣와의 상관성을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東武公의 四臟歸類에 대해 『東醫壽世保元草藁』에 설명된 내용을 도표화시키고, 東武公의 哀怒喜樂의 四氣와 『內經』에서의 五行의 속성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도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肺	脾	肝	腎
旺	春 → 生	夏 → 長	秋 → 收	冬 → 藏
象	木 → 發	火 → 鬱	金 → 澁	水 → 泄
以	呼 → 遠	束 → 大	緩 → 廣	吸 → 深
能	哀 → 直	怒 → 栗	喜 → 寬	樂 → 溫
充	神 / 凝散	氣 / 完聚	血 / 和行	精 / 畜止
藏	意 / 妙伸	魄 / 活動	魂 / 安靜	志 / 忽屈

표 3. 東武公의 四臟歸類 (『東醫壽世保元草藁』)

五行		四氣	
木	生 湧出, 曲直, 伸張 東方, 春, 芽	哀	直升, 直而伸 呼, 呼散, 敏達(肺達事務) 溫 上(上焦, 耳, 肺, 胃脘, 額, 頭) 皮毛
火	長 分散, 擴張, 分裂, 長茂 南方, 夏, 枝花 火熱	怒	橫升, 栗而包 納, 勇統(脾台交遇) 熱 中上(中上焦, 目, 脾, 胃, 臆, 肩) 筋
土	化 和順, 不偏不黨, 中和, 調節 中央, 長夏		
金	收 收藏 包藏, 堅斂, 肅殺 西方, 秋, 實	喜	放降, 寬而緩 吸, 吸聚, 雅立(肝立黨與) 涼 中下(中下焦, 鼻, 肝, 小腸, 臍, 腰) 肉
水	藏, 閉藏 凝固, 統一 就下, 滋潤 北方, 冬, 根核	樂	陷降, 溫而畜 出, 恒定(腎定居處) 寒 下(下焦, 口, 腎, 大腸, 腹, 腎) 骨

표 4. 五行과 哀怒喜樂 四氣와의 속성 비교

위 두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체 생리기능을 설명함에 『內經』에서는 木火土金水의 五行 개념으로 기운의 순환구조로써 설명한 반면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哀怒喜樂(木火金水)의 四氣 개념으로 기운의 升降運動으로서 설명한 것을 알 수 있다. 哀怒喜樂의 四氣 개념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위 도표에서 제시되어 있는 『東醫壽世保元草藁』의 내용에 따라 五行 屬性에 대비하여 보면 哀氣는 木氣에, 怒氣는 火氣에, 喜氣는 金氣에, 樂氣는 水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安身과 接人의 조건에서 哀怒喜樂之氣의 운동

(1) 安身과 接人의 개념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인 ‘自己獨得之性’과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인 ‘與人相接之性’에 대한 개념은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安身과 接人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져 있다. 安身과 接人은 서로 상대

42)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對한 考察. 경희대학교학원. 1991. p. 40.

되는 개념으로 安身은 ‘혼자서 편안히 있을 때’의 상태이며, 接人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sup>43)</sup> 安身に 있어서는 “太陽之安身, 點於居處, 而不點於事務. 少陰之安身, 點於事務, 而不點於居處. 少陽之安身, 點於黨與, 而不點於交遇. 太陰之安身, 點於交遇, 而不點於黨與.”라 하였으며, 接人에 있어서는 “太陽之接人, 能於交遇, 而不能於黨與. 少陰之接人, 能於黨與, 而不能於交遇. 少陽之接人, 能於事務, 而不能於居處. 太陰之接人, 能於居處, 而不能於事務.”라 하였다.

朴性植은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 ‘쉽게 생각하여 安身은 性氣의 초기 개념, 接人은 情氣의 초기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安身을 性氣와 관련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본성에 가까운 人事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면, 接人은 情氣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접함으로 인해 마음이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상태, 즉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人事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4)</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2) 安身에서의 點·不點에 대한 의미

安身의 조건에서 人事의 點, 不點을 각 체질별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의 點의 의미를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위에서 인용된 원문 바로 다음 문장에 安身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太少陰陽人의 欲心<sup>45)</sup>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註에 “有是點而有是慝, 衆人皆然, 惟知命者, 不然.”이라고 ‘슬기롭고 민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간사하게 속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 衆人에게서 모두 그러하나 오직 命을 알고 따르는 자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點을 慝<sup>46)</sup>

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性命을 올바르게 따르고 기르는 責心, 責氣의 방법론을 설명한 문장<sup>47)</sup>에서 “馬之心覺, 點於牛者, 馬之責心, 點於牛也.”라고 ‘말의 心覺이 소의 心覺보다 민첩하고 영특한 것은 말의 마음을 각성시키는 것이 소의 責心보다 민첩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點’이란 ‘지속적으로 일깨워서 민첩하고 능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太陽之安身, 點於居處, 而不點於事務.”라고 한 것을 설명하면 太陽人은 원래 本性的으로 事務를 行하는 肺가 大하므로 굳이 事務를 함에 스스로 일깨우고 能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居處에 있어서는 肺腎의 引縮운동의 상관관계<sup>48)</sup>에 있어서 肺의 引운동이 위주가 되면 당연히 腎의 縮운동이 위축될 것이므로 부단히 腎의 縮운동을 복돋아서 居處를 行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腎의 縮운동의 부족으로 腎부위에 欲心이 생기기 쉬우며 이러한 欲心에 의해 居處를 竊物의 慾心으로 속이게 되는 것이다.<sup>49)</sup>

“少陰之安身, 點於事務, 而不點於居處.”라고 한 것은 少陰人은 원래 本性的으로 居處를 行하는 腎이 大하므로 굳이 居處를 할 때 點할 필요가 없으나 事務에 있어서는 少陰人의 臟理 특성상 腎의 縮운동이 위주가 되어 肺의 引운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부단히 肺의 引운동을 복돋아서 事務를 行하여야 할 것이다. 肺의 引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頭부위에 欲心이 생기기 쉬우며 이러한 欲心에 의해 事務에서 奪利의 擅心으로 인식해지게 된다.<sup>50)</sup>

43)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 75.  
 44) 朴性植.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 81.  
 45)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是故, 太陽之欲心, 詐於居處, 而不善於事務. 少陰之欲心, 善於事務, 而不詐於居處. 少陽之欲心, 懶於黨與, 而不侈於交遇. 太陰之欲心, 侈於交遇, 而不懶於黨與.”라 하였다.  
 46) 慝: 약할·간사할·더러울·속일 (특)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4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 而責之者清, 不責者濁. 馬之心覺, 點於牛者, 馬之責心, 點於牛也. 鷹之氣勢, 猛於鴟者, 鷹之責氣, 猛於鴟也. 心體之清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鴟鷹者, 以理推之而猶然, 況於人乎. 或相倍蓰, 或相千萬者, 豈其生而輒得, 茫然不思, 居然自至而然哉.”라 하였다.  
 48)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五統에서 “肺腎之運轉, 一引而一縮, 任呼吸之貴者宜乎. 經其終始之貫串也.”라 하였다.  
 4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腎有慾心. ……慾心, 竊物也.”라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太陽之欲心, 詐於居處, 而不善於事務.”라 하였다.  
 50)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頭有擅心. ……擅心, 奪利也.”라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少陰之欲心, 善於事務, 而不詐於居處.”라 하였다.

“少陽之安身，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라고 한 것은 少陽人은 원래 本性的으로 交遇를 行하는 脾가 大하므로 굳이 交遇를 할 때 點할 필요가 없으나 黨與에 있어서는 脾肝의 收放운동의 상관계(51)에 있어서 脾의 放운동이 위주가 되면 당연히 肝의 收운동이 위축될 것이므로 부단히 肝의 收운동을 복돋아서 黨與를 行하여야 할 것이다. 肝의 收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腰부위에 欲心이 생기기 쉬우며 이러한 欲心에 의해 黨與에 自卑의 懶心으로 게을러지게 된다.(52)

“太陰之安身，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라고 한 것은 太陰人은 원래 本性的으로 黨與를 行하는 肝이 大하므로 굳이 黨與를 이룸에 點할 필요가 없으나 交遇에 있어서는 太陰人의 臟理 특성상 肝의 收운동이 위주가 되어 脾의 放운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부단히 脾의 放운동을 복돋아서 交遇를 行하여야 할 것이다. 脾의 放운동이 부족하므로 肩부위에 欲心이 생기기 쉬우며 이러한 欲心에 의해 交遇에 自尊의 侈心으로 오만해지게 된다.(53)

(3)安身·接人의 조건과 哀怒喜樂之氣와의 관계

위 내용을 安身과 接人을 구분하여 人事를 배속시켜 도표화 시키고, 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人事를 각각 「擴充論」에서의 내용(54)을 근거로 哀怒喜樂之氣로 전환시키고 四氣를 四焦에 배속시켜 도표화 시

키면 다음과 같다.

體質	安身		接人	
	點	不點	能	不能
太陽人	居處(地方)	事務(天時)	交遇	黨與
少陽人	黨與(人倫)	交遇(世會)	事務	居處
太陰人	交遇(世會)	黨與(人倫)	居處	事務
少陰人	事務(天時)	居處(地方)	黨與	交遇

표 5. 太少陰陽人의 安身에서 人事의 點·不點과 接人에서 人事의 能·不能

安身に 대한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性에 대한 측면으로 마땅히 人事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의 天機로 설명해야 하나 위 도표에서는 接인과 같이 人事로 설명한 이유(55)는 『東醫壽世保元草藁』와 『東醫壽世保元』간의 구조적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東醫壽世保元草藁』당시까지는 天人의 構造만 있었으나 『東醫壽世保元』에서 性命의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草本卷에서의 天은 人으로, 人은 性으로 바뀌고, 天과 命은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괄호 안에 『東醫壽世保元』의 天機의 四象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해를 도왔다.

「性命論」의 天機·人事, 「四端論」의 性·情, 「擴充論」의 性氣·情氣, 「四象人辨證論」의 性質·材幹에 대한 太少陰陽人의 배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51)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五統에서 “脾肝之運轉，一收而一放，操唱和之機者宜乎。緯其繁歇之範圍也。”라 하였다.  
 52)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腰有懶心，……懶心，自卑也。”라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少陽之欲心，懶於黨與，而不侈於交遇。”라 하였다.  
 5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肩有侈心，……侈心，自尊也。”라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太陰之欲心，侈於交遇，而不懶於黨與。”라 하였다.  
 5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怒，能勇統於交遇故，交遇，不侮也。太陽之喜，不能雅立於黨與故，黨與，侮也。是故，太陽之暴怒，不在於交遇而，必在於黨與也，……，少陰之喜，能雅立於黨與故，黨與，助也。少陰之怒，不能勇統於交遇故，交遇，不助也。是故，少陰之浪喜，不在於黨與而，必在於交遇也，……，少陽之哀，能敏達於事務故，事務，不欺也。少陽之樂，不能恒定於居處故，居處，欺也。是故，少陽之暴哀，不在於事務而，必在於居處也，……，太陰之樂，能恒定於居處故，居處，保也。太陰之哀，不能敏達於事務故，事務，不保也。是故，太陰之浪樂，不在於居處而，必在於事務也。”라 하였다.

55) 東醫壽世保元草藁의 原人 第一統이 東醫壽世保元 性命論과 같은 天·體의 입장에서 구성되었다면 原人 第二統은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 같은 人·用의 입장에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性情의 초기 개념인 安身과 接人을 論할 때에도 天機가 아닌 人事를 들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四象人	天機	性	性氣	性質
太陽人	(太陽之耳 察於) 天時	哀	進 (↔退)	疏通
少陽人	(少陽之目 察於) 世會	怒	學 (↔措)	剛武
太陰人	(太陰之鼻 察於) 人倫	喜	靜 (↔動)	成就
少陰人	(少陰之口 察於) 地方	樂	處 (↔出)	端重

표 6. 太少陰陽인의 天機·性·性氣·性質

四象人	人事	情	情氣	材幹
太陽人	(太陽之脾 行於) 交遇	怒	爲雄	交遇
少陽人	(少陽之肺 行於) 事務	哀	外勝	事務
太陰人	(太陰之腎 行於) 居處	樂	內守	居處
少陰人	(少陰之肝 行於) 黨與	喜	爲雌	黨與

표 7. 太少陰陽인의 人事·情·情氣·材幹

『東醫壽世保元草藁』의 安身에서의 點·不點의 太少陰陽인에 따른 配屬이 『東醫壽世保元』의 구조와 달리 人事의 四象概念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天機에 해당하는 四象概念으로 이해하기 위해 性이 性氣로 표현되어지고 性氣가 性質로 정형화되는 과정을 삽입하여 이해를 도왔다. 또 天時, 世會, 人倫, 地方의 天機가 哀怒喜樂之性으로, 太陽之脾의 交遇, 少陽之肺의 事務, 太陰之腎의 居處, 少陰之肝의 黨與가 怒哀樂喜의 情으로 쓰여지는 것을 통해 아래 표에서의 安身과 接人에서의 四氣 배속의 근거로 삼았다.

體質	安身(性)				接人(情)			
	點		不點		不能		能	
	四氣	四焦	四氣	四焦	四氣	四焦	四氣	四焦
太陽人	樂	下焦	哀	上焦	喜	中下焦	怒	中上焦
少陽人	喜	中下焦	怒	中上焦	樂	下焦	哀	上焦
太陰人	怒	中上焦	喜	中下焦	哀	上焦	樂	下焦
少陰人	哀	上焦	樂	下焦	怒	中上焦	喜	中下焦

표 8. 太少陰陽인의 安身과 接人에 있어서의 四氣와 四焦의 배속

위 도표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安身에서 太陽인은 哀性이 遠散하여 上焦 肺局의 哀氣가 담당하는 事務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굳이 마음을 일깨우고 복돋을 필요가 없으나 下焦 腎局의 樂氣가 담당하는 居處에 있어서는 大小臟局과는 無關하여 能하지도 不能하지도 않으나 제대로 居處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不단히 責氣하여야 怠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責氣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竊物의 慾心<sup>56)</sup>이 생기게 되는데 이 慾心은 居處를 속이면서 드러나게 된다.<sup>57)</sup> 太陽인이 居處를 行할 때에는 少陰 腎의 魄을 믿고 의지하여<sup>58)</sup> 居處를 하므로 不단히 責氣(點)하게 되면 大人의 資業을 이루어내어 여기(腎)에 方略이 생기게 된다.<sup>59)</sup>

少陽인은 怒性이 宏抱하여 中上焦 脾局의 怒氣가 담당하는 交遇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굳이 마음을

5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腎有慾心……慾心, 竊物也.”라 하였다.

57)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太陽之慾心, 詐於居處, 而不畜於事務.”라 하였다.

58) 國譯東醫壽世保元·東武遺稿 四象要目 註解 6章에서 “腎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太而壯經營, 自有方略. 則此句之論, 少陰人言, 而太陽人言者, 蓋太陽生少陰, 而恃其子魄故也.”라 하였다.

5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라 하였다.

일깨우고 복돋을 필요가 없으나 中下焦 肝局의 喜氣가 담당하는 黨與에 있어서는 大小臟局과는 無關하여 能하지도 不能하지도 않으나 제대로 黨與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勿論히 責氣하여야 怠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責氣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自卑의 懶心<sup>60)</sup>이 생기는데 이 欲心은 黨與를 게을리 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sup>61)</sup> 少陽人이 黨與를 行할 때에는 太陰 肝의 魂을 빙자하여<sup>62)</sup> 黨與를 하므로 勿論히 責氣(點)하게 되면 大人의 資業을 이루어 내어 여기(腰)에 材幹이 생기게 된다.<sup>63)</sup>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하여 中下焦 肝局의 喜氣가 담당하는 黨與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굳이 마음을 일깨우고 복돋을 필요가 없으나 中上焦 脾局의 怒氣가 담당하는 交遇에 있어서는 大小臟局과는 無關하여 能하지도 不能하지도 않으나 제대로 交遇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勿論히 責氣하여야 怠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責氣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自尊의 侈心<sup>64)</sup>이 생기는데 이 欲心은 交遇에 오만(侈)해지게 된다.<sup>65)</sup> 太陰人이 交遇를 行할 때에는 少陽 脾의 靈을 빌어서<sup>66)</sup> 交遇를 하므로 勿論히 責氣(點)하게 되면 大人의 資業을 이루어 내어 여기(肩)에 威儀가 생기게 된다.<sup>67)</sup>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하여 下焦 腎局의 樂氣가 담

당하는 居處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굳이 마음을 일깨우고 복돋을 필요가 없으나 上焦 肺局의 哀氣가 담당하는 事務에 있어서는 大小臟局과는 無關하여 能하지도 不能하지도 않으나 제대로 事務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勿論히 責氣하여야 怠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責氣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奪利의 擅心<sup>68)</sup>이 생기는데 이 欲心은 事務에 吝嗇해지게 된다.<sup>69)</sup> 少陰人이 事務를 行할 때에는 太陽 肺의 神을 뺏아서<sup>70)</sup> 事務를 하므로 勿論히 責氣(點)하게 되면 大人의 資業을 이루어 내어 여기(頭)에 識見이 생기게 된다.<sup>71)</sup>

接人에서 哀性이 遠散한 太陽人은 哀怒相成하여 怒情이 促急하기 때문에 中上焦 脾局의 怒氣가 담당하는 交遇는 能하게 이루어지나 中下焦 肝局의 喜氣가 담당하는 黨與에 있어서는 肝小하여 不能하므로 黨與에서 罔心(侮)을 받지 않으려면 勿論히 責心하여야 邪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sup>72)</sup> 여기(臍)에 깃든 邪心은 伐心(伐操)<sup>73)</sup>이며 이 邪心을 극복하여 絶世의 慧覺을 이루어낸다면 行檢이 될 것이다.<sup>74)</sup>

怒性이 宏抱한 少陽人은 哀怒相成하여 哀情이 促急하기 때문에 上焦 肺局의 哀氣가 담당하는 事務는 能하게 이루어지나 下焦 腎局의 樂氣가 담당하는 居處에 있어서는 腎小하여 不能하므로 居處에서 속임(欺)을 받지 않으려면 勿論히 責心하여야 邪心이 생

60)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腰有懶心. ……懶心, 自卑也.”라 하였다.

61) 東醫壽世保元 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少陽之欲心, 懶於黨與, 而不侈於交遇.”라 하였다.

62) 國譯東醫壽世保元·東武遺稿 四象要目 註解 6章에서 “腰之血海, 魂之所舍也. 魂之爲氣, 顯達而奇行裝, 自有材幹. 則此句之論, 太陰人言, 而少陽人言者, 蓋少陽出太陰, 而憑其母魂故也.”라 하였다.

63)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才幹, 必在此也.”라 하였다.

6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肩有侈心. ……侈心, 自尊也.”라 하였다.

65) 東醫壽世保元 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太陰之欲心, 侈於交遇, 而不懶於黨與.”라 하였다.

66) 國譯東醫壽世保元·東武遺稿 四象要目 註解 6章에서 “肩之膜海, 靈之所舍也. 靈之爲氣, 嚴肅而酷態度, 自有威儀. 則此句之論, 少陽人言, 而太陰人言者, 蓋太陰生少陽, 而假其子靈故也.”라 하였다.

6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라 하였다.

6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頭有擅心. ……擅心, 奪利也.”라 하였다.

69) 東醫壽世保元 草藁 原人 第二統에서 “少陰之欲心, 吝於事務, 而不許於居處.”라 하였다.

70) 國譯東醫壽世保元·東武遺稿 四象要目 註解 6章에서 “頭之臍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 太陽人言, 而特學少陰人言者, 蓋少陰出太陽, 而奪其母神故也.”라 하였다.

71)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라 하였다.

72)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怒, 能勇統於交遇, 故交遇不侮也. 太陽之喜, 不能雅立於黨與, 故黨與侮也. 是故, 太陽之暴怒, 不在於交遇, 而必在於黨與也.”라 하였다.

73)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臍有伐心. ……伐心, 伐操也.”라 하였다.

7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絶世之行檢, 必在此也.”라 하였다.

기지 않을 것이다.<sup>75)</sup> 여기(腹)에 깃든 邪心은 夸心(夸志)<sup>76)</sup>이며 이 邪心을 극복하여 絶世의 慧覺을 이루어낸다면 度量이 될 것이다.<sup>77)</sup>

喜性이 廣張한 太陰人은 喜樂相資하여 樂情이 促急하기 때문에 下焦 腎局의 樂氣가 담당하는 居處는 能하게 이루어내나 上焦 肺局의 哀氣가 담당하는 事務에 있어서는 肺小하여 不能하므로 事務에서 믿음(保)을 받으려면 不단히 責心하여야 邪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sup>78)</sup> 여기(頷)에 깃든 邪心은 驕心(驕意)<sup>79)</sup>이며 이 邪心을 극복하여 絶世의 慧覺을 이루어낸다면 籌策이 될 것이다.<sup>80)</sup>

樂性이 深確한 少陰人은 喜樂相資하여 喜情이 促急하기 때문에 中下焦 肝局의 喜氣가 담당하는 黨與는 能하게 이루어내나 中上焦 脾局의 怒氣가 담당하는 交遇에 있어서는 脾小하여 不能하므로 交遇에서 이익(助)을 얻으려면 不단히 責心하여야 邪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sup>81)</sup> 여기(臆)에 깃든 邪心은 矜心(矜慮)<sup>82)</sup>이며 이 邪心을 극복하여 絶世의 慧覺을 이루어낸다면 經綸이 될 것이다.<sup>83)</sup>

앞 문장에서 安身과 接人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性을 일컫는 安身에 責氣, 擅侈懶竊의 怠心, 識見·威

儀·材幹·方略의 資業을 연결시키고, 情을 일컫는 接人에 責心, 驕矜伐夸의 邪心, 籌策·經綸·行檢·度量의 慧覺을 연결시켰는데, 이는 天·體의 관점에서 論한 性命과 人·用의 관점에서 論한 性情의 차이에 安身의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인 性을 中에 맞추기 위해서는 性命의 命을 따라야하며, 接人의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인 情을 節에 맞추기 위해서는 性命의 性을 좇아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性情의 性은 性命의 命과 연결되고, 性情의 情은 性命의 性과 연결되어진다.

「性命論」에서는 “天生萬民, 性以慧覺, ……慧覺者, 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資業者, 道之所由生也.”라 하고 “人之頷臆臍腹之中,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中,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라고 하여 存在를 설명하는 德의 내용에 性, 慧覺을 거론하고 心과 頷臆臍腹, 知를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여야하는 當爲를 설명하는 道의 내용에 命, 資業을 거론하고 身과 頭肩腰腎, 行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東醫壽世保元草藥』 「原人 第一統」에서도 “天下所成者, 其理擴而難周, 明知其理之善者, 德也, 性也. 一人之所作者, 其欲膠着而易惑, 誠行其欲之正者, 道也, 命也.”라 하여 德의 내용으로 天과 性을, 道의 내용으로 人과 命을 설명하였으나, 人·用의 입장에서 과도한 性情에 의해 臟氣가 손상됨을 설명하고 哀怒喜樂을警戒하라는 내용을 담은 「原人 第三統」에서는 “喜怒哀樂未發, 而預備者, 非恭敬之道乎? 喜怒哀樂既發, 而不強擥者, 非誠實之德乎? 未發而預備者, 非中之謂乎? 既發而不強擥者, 非節之謂乎?”<sup>84)</sup>라 하여 誠實之德으로써 喜怒哀樂之已發, 情을 節度에 맞추어야 한

7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陽之哀, 能敏達於事務, 故事務不欺也, 少陽之樂, 不能恒定於居處, 故居處欺也. 是故, 少陽之暴哀, 不在於事務, 而必在於居處也.”라 하였다.

7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腹有夸心. ……夸心, 夸志也.”라 하였다.

7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絶世之度量, 必在此也.”라 하였다.

7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樂, 能恒定於居處, 故居處保也, 太陰之哀, 不能敏達於事務, 故事務不保也. 是故, 太陰之浪樂, 不在於居處, 而必在於事務也.”라 하였다.

7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頷有驕心. ……驕心, 驕意也.”라 하였다.

8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陰之頷, 宜戒驕心. 太陰之頷, 若無驕心, 絶世之籌策, 必在此也.”라 하였다.

81)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陰之喜, 能雅立於黨與, 故黨與助也, 少陰之怒, 不能勇統於交遇, 故交遇不助也. 是故, 少陰之浪喜, 不在於黨與, 而必在於交遇也.”라 하였다.

82)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臆有矜心. ……矜心, 矜慮也.”라 하였다.

83)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絶世之經綸, 必在此也.”라 하였다.

84) 東醫壽世保元草藥 原人 第三統에서 “太陽人, 未怒前, 預備暴怒, 則怒易安也. ……太陽人少陽人, 深警哀怒之過度, 而祇可少引喜樂之不及, 而不必大做, 喜樂之事, 而強擥之也. 若強擥喜樂, 則喜樂不出於其情, 而欲心動而哀怒益偏也. ……蓋警之而少引, 則過之者退, 適於中, 而不及者, 亦暗進守中矣. 若強擥之而大做, 則非徒無益而又害之. 是故, 恭敬也已矣, 誠信也已矣. 喜怒哀樂未發, 而預備者, 非恭敬之道乎? 喜怒哀樂既發, 而不強擥者, 非誠實之德乎? 未發而預備者, 非中之謂乎? 既發而不強擥者, 非節之謂乎?”라 하였다.

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恭敬之道로써 喜怒哀樂之未發, 性을 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格致藁』에서 “以天命而授人性者, 天命之性也. 以人性而順天命者, 率性之道也. 喜怒哀樂之未發, 卽致知慎獨也. ……致知慎獨不息而久, 則修道之教也.”라 하여 ‘天命이 인간에게 부여한 性을 天命之性이라하고, 人性으로써 天命을 따르는 것을 率性之道라 한다. 喜怒哀樂이 未發한 상태는 깨닫고자 자기 마음속의 변화에 조심하여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를 오래도록 지키는 것을 修道之教라 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인 ‘性’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道’를 따라야하는데 그 방법론으로는 正命之道에 있으며 이는 天命을 行하는 頭肩腰臀의 行을 빌어서 擅侈懶竊의 怠心을 경계하고 命(資業)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인 ‘情’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德’을 좇아야하는데 그 방법론으로는 至性之德에 있으며 이는 本然之性인 性命의 性을 지극히 알 수 있게 하는 領臆臍腹의 知를 빌어서 驕矜伐夸의 邪心을 경계하고 性(慧覺)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喜怒哀樂之未發之性(性)은 天命을 그대로 따르는 修其身立其命하는 방법론을 좇아 怠心을 극복하는 道를 따라야하며, 喜怒哀樂之已發之性(情)은 天性을 그대로 보존하고 밝히는 存其心養其性하는 방법론을 좇아 邪心을 극복하는 德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도표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性命 (存在·當爲)			性情 (生化·機能)		
性	心	至性之德	恭敬之道	外	性
	知	存其心 養其性		內	
命	身	正命之道	喜怒哀樂之未發而預備者	天	情
	行	修其身 立其命		人	
			誠實之德	外	
			喜怒哀樂之既發而不強振者	人	
				天	
				接人	

표 9. 性命과 性情의 道德에 의한 연결

위 도표에서 性命에서의 ‘性’은 하늘(天)으로부터 稟賦받은 내 안에 存在하는 德으로서 그 存在를 지키고 밝히기만 하면 至性之德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用的 측면에서 그 存在를 바로 지켜내는 것은 四臟의 仁義禮智인 四臟之氣를 節度에 맞게 擴充시켜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에서 存在性을 ‘內’로, 性氣의 작용으로 축적된 몸 안에 존재하는 四臟之氣를 情氣로써 發用하여 擴充시켜나가는 것을 ‘內→外’로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性命에서의 ‘命’은 내가 생활 속에서 몸소 行함으로써 실천하여야 하는 當爲性으로 지속적으로 命을 자각하고 몸은 닦으면서 실천한다면 正命之道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用的 측면에서 그 當爲性을 실천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天命으로써 稟賦받은 心の 理致와 仁義禮智를 지키고 밝혀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에서 當爲性을 ‘外’로, 性氣의 順善하면서 외부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外→內’로 표시한 것이다.

### 3. 哀怒喜樂之氣의 升降運動에 따른 四焦에서의 기운 變化

1) 哀怒喜樂의 性氣, 情氣의 升降運動이 臟局의 大

小에 영향을 끼치는 기전

(1)哀怒喜樂之氣의 升降運動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少陰陽人の性情에 따른 기운의 변화로 太少陰陽人の 大小臟局이 益盛, 益削되는 기전을 설명한 문장과 哀怒喜樂의 감정변화에 따른 肺脾肝腎이 손상되는 기전을 설명한 문장을 함께 비교해 보면 哀怒喜樂의 기운이 작용이 시작하는 부위와 그 기운이 도달하는 부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哀氣는 下焦에서 直升하여 肺부위 上焦에 다다르며, 怒氣는 中下焦에서 橫升하여 脾부위 中上焦에 다다르고, 喜氣는 中上焦에서 放降하여 肝부위 中下焦에 다다르며, 樂氣는 上焦에서 陷降하여 腎부위 下焦에 다다른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 조문은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少陰陽人の性情과 臟의 大小에 영향을 끼치는 기전을 설명한 문장과 同篇의 哀怒喜樂之氣(情)에 의해 四臟을 傷하는 기전을 설명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다.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즉, 이 條文에서 太陽人の 臟局이 肺大肝小하게 되는 이치는 太陽人の 天稟의 性情이 哀性이 遠散함으로써 肺에 기운이 공급되어 肺가 더욱 盛해지게 되고, 怒情이 促急함으로써 肝에서의 기운이 激動되어

肝이 削해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少陽人の 臟局이 脾大腎小하게 되는 이치는 少陽人の 天稟의 性情이 怒性이 宏抱함으로써 脾에 기운 공급이 되어 脾가 더욱 盛해지게 되고, 哀情이 促急함으로써 腎에서의 기운이 激動되어 腎이 削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太陰人の 臟局이 肝大肺小하게 되는 이치는 太陰人の 天稟의 性情이 喜性이 廣張함으로써 肝에 기운 공급이 되어 肝이 더욱 盛해지게 되고, 樂情이 促急함으로써 肺에서의 기운이 激動되어 肺가 削해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少陰人の 臟局이 腎大脾小하게 되는 이치는 少陰人の 天稟의 性情이 樂性이 深確함으로써 腎에 기운 공급이 되어 腎이 더욱 盛해지게 되고, 喜情이 促急함으로써 脾에서의 기운이 激動되어 脾가 削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頻起怒而· 頻伏怒則· 腰脇· 頻迫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 迫蕩不定則· 肝其不傷乎·

乍發喜而· 乍受喜則· 胸腋· 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 闊狹不定則· 脾其不傷乎·

忽動哀而· 忽止哀則· 脊曲· 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 屈伸不定則· 腎其不傷乎·

屢得樂而· 屢失樂則· 背傾· 暴揚而暴抑也· 背傾者· 肺之所住着處也· 背傾· 抑揚不定則· 肺其不傷乎·

이 條文에서는 각 體質의 偏小之臟이 益偏小해지게 되는 기전을 설명하였는데 太陽人이 怒情을 자주 일으켰다가 억제하게 되면 腰脇 부위가 迫蕩不定하게 되어 肝이 소재한 腰脇의 中下焦 부위가 손상되어 肝이 傷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少陰人の 脾小하게 되는 기전은 喜情을 자주 발하였다가 거두어들이게 되면 胸腋 부위가 闊狹不定하게 되어 脾가 소재한 腰脇의 中上焦 부위가 손상되어 脾가 傷하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 少陽人の 腎小하게 되는 기전은 哀情을 돌연 動하였다가 갑자기 그치게 되면 脊曲 부위가 屈伸不定하게 되어 腎이 소재한 脊曲의 下焦 부위가 손상되어 腎이 傷하게 됨을 설명하였으며, 太陰人の 肺小하게 되는 기전은 樂情을 거듭 得하였다가 또다시 잃게

되면 背頤 부위가 抑揚不定하게 되어 肺가 소재한 背頤의 上焦 부위가 손상되어 肺가 傷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2) 哀怒喜樂之氣의 升降運動에 의한 太少陰陽의 臟腑大小 형성기전

太陽人의 喜性이 稟賦 받은 바대로 遠散하게 直升하면 기운이 肺로 注入되어 肺는 더욱 盛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술한대로 往來臨立(達合立定)의 간섭이 없는 安身에서의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은 哀怒喜樂의 順動之氣이기 때문에 發越而上騰하여<sup>85)</sup> 哀氣가 도달하는 上焦 肺부위를 盛하게 補益해주게 되는 것이다. 또 哀怒의 陽氣는 相成<sup>86)</sup>하기 때문에 哀性이 遠散함으로써 怒情이 자연히 動하여 促急하여지는 상황에서 자주 그 怒情을 起伏시킨다면 肝부위인 腰脇이 迫蕩不定하게 되어 肝이 激하여 傷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怒情은 원래 人身의 四氣 가운데 中上焦의 脾局에 있는 情氣인데 왜 하필이면 肝부위인 腰脇이 迫蕩不定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脾와 肝은 그 氣의 運轉이 一收一放하여 左右의 緊歇(빡빡하고 느슨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sup>87)</sup> 怒氣가 肝局에서부터 脾局으로 과도한 收放운동을 통해 위로 오르려고 한다면 기운이 肝局에서 격동되어 肝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88)</sup>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이를 逆動之氣로 표현하여 ‘怒氣가 逆動되어 暴發하는 양상

으로 위로 오르게 되면 肝이 傷한다.’<sup>89)</sup>고 설명하였다.

少陽人의 怒性이 稟賦 받은 바대로 宏抱하게 橫升하면 기운이 脾로 注入되어 脾는 더욱 盛하게 될 것이다. 宏抱한 怒性은 安身에서의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이며, 哀怒喜樂의 順動之氣이기 때문에 發越而上騰하여 怒氣가 도달하는 中上焦 脾부위를 盛하게 補益해주게 되는 것이다. 또 哀怒의 陽氣는 相成하기 때문에 怒性이 宏抱함으로써 哀情이 자연히 動하여 促急하여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哀情을 격동시켰다가 그치기(動止)를 반복하면 腎부위인 脊曲이 屈伸不定하게 되어 腎이 激하여 傷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哀情은 원래 人身의 四氣 가운데 上焦의 肺局에 있는 情氣인데 여기서 哀情에 의해 腎부위인 脊曲이 屈伸不定해지게 되는 이유는 肺와 腎은 그 氣의 運轉이 一引一縮하여 上下의 終始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sup>90)</sup> 哀氣가 腎局에서부터 肺局으로 과도한 引縮운동을 통해 올라가려고 한다면 기운이 腎局에서 격동되어 腎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哀氣가 逆動되어 暴發하는 양상으로 위로 오르게 되면 腎이 傷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太陰人의 喜性이 稟賦 받은 바대로 廣張하게 放降하면 기운이 肝으로 注入되어 肝은 더욱 盛하게 될 것이다. 廣張한 喜性은 安身에서의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이며, 哀怒喜樂의 順動之氣이기 때문에 緩安而下墜하여 喜氣가 도달하는 中下焦 肝부위를 盛하게 補益해주게 되는 것이다. 또 喜樂의 陰氣는 相資하기 때문에 喜性이 廣張함으로써 樂情이 자연히 動하여 促急하여지는 상황에서 거듭 樂情을 얻었다 잃었다(得失)한다면 肺부위인 背頤가 抑揚不定하게 되어 肺가 激하여 傷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8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이라 하였다.

8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 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 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侈樂無厭.”이라 하였다.

87)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5統에서 “脾肝之運轉, 一收而一放, 操唱和之機者宜乎. 緯其緊歇之範圍也.”라 하였다.

88) 본 論文의 本論 3. 3) 四臟의 內外와 上下左右개념에 따른 哀怒喜樂之氣와 四臟의 大小 變化 연구에서 肺脾肝腎의 引縮收放 운동에 대해 상술하였다.

8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W에서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則, 脾肺傷.”이라 하였다.

90) 東醫壽世保元草藁 原人 第5統에서 “肺腎之運轉, 一引而一縮, 任呼吸之貴者宜乎. 經其終始之貫串也.”라 하였다.

로 樂情은 원래 人身의 四氣 가운데 下焦의 腎局에 있는 情氣인데 여기서 樂情에 의해 肺부위인 背頤가 抑揚不定해지게 되는 이유는 肺와 腎은 그 氣의 運轉이 一引一縮하여 上下의 終始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樂氣가 肺局에서부터 腎局으로 과도한 引縮운동을 통해 내려오려고 한다면 기운이 肺局에서 격동되어 肺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樂氣가 逆動되어 浪發하는 양상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肺가 傷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少陰人의 樂性이 稟賦 받은 바대로 深確하게 陷降하면 기운이 腎으로 注入되어 腎은 더욱 盛하게 될 것이다. 深確한 樂性은 安身에서의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이며, 喜怒哀樂의 順動之氣이기 때문에 緩安而下墜하여 樂氣가 도달하는 下焦 腎부위를 盛하게 補益해주게 되는 것이다. 또 喜樂의 陰氣는 相資하기 때문에 樂性이 深確함으로써 喜情이 자연히 動하여 促急하여지는 상황에서 자주 그 喜情을 갑자기 發하고 또 갑자기 거두어들인다면(發收) 脾부위인 胸腋이 關狹不定하게 되어 脾가 激하여 傷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喜情은 원래 人身의 四氣 가운데 中下焦의 肝局에 있는 情氣인데 여기서 喜情에 의해 脾부위인 胸腋이 關狹不定하게 되는 이유는 脾와 肝은 그 氣의 運轉이 一收一放하여 左右의 緊歇(빡빡하고 느슨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喜氣가 脾局에서부터 肝局으로 과도한 收放운동을 통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면 기운이 脾局에서 격동되어 脾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는 이를 逆動之氣로 표현하여 ‘喜氣가 逆動되어 浪發하는 양상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脾가 傷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怒情은 中下焦 腰脇에서, 喜情은 中上焦 胸腋에서, 哀情은 下焦 脊曲에서, 樂情은 上焦 背頤에서 작용하여 각기 怒情은 肝, 喜情은 脾, 哀情은 腎, 樂情은 肺를 傷한다고 한 것이다.

## 2) 喜怒哀樂之氣의 四焦에서의 升降運動

### (1) 喜怒哀樂之氣의 升降運動의 논리적 근거

喜怒哀樂之氣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哀氣는 下焦에서 上焦로, 怒氣는 中下焦에서 中上焦로, 喜氣는 中上焦에서 中下焦로, 樂氣는 上焦에서 下焦로 기운이 움직인다고 論한 근거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才幹, 腎有方略” 조문에 대한 『東武遺稿』의 自註에서 “少陰出太陽, 而奪其母神故也.”, “太陰生少陽, 而假其子靈故也.”, “少陽出太陰, 而憑其母魂故也.”, “太陽生少陰, 而恃其子魄故也.”<sup>91)</sup>라고 표현한 문장에 둘 수 있다. 이 말은 ‘少陰은 太陽에서 出하는데 少陰이 太陽의 神을 뺏어서 사용하고, 太陰은 少陽을 낳는데 太陰이 少陽의 靈을 빌어서 사용하며, 少陽은 太陰에서 出하는데 少陽이 太陰의 魂을 빙자하여 사용하고, 太陽이 少陰을 生하는데 太陽이 少陰의 魄을 믿고 의지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충하여 해석하면 太陽의 현상적인 활동은 少陰 腎臟의 에너지인 魄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少陽의 현상적인 활동은 太陰 肝臟의 에너지인 魂을 끌어다가 사용하며, 太陰의 현상적인 활동은 少陽 脾臟의 에너지인 靈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少陰의 현상적인 활동은 太陽 肺臟의 에너지인 神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91) 國譯東醫壽世保元·東武遺稿 四象要目 註解 6章에서 “頭之賦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 太陽人言, 而特學少陰人言者, 蓋少陰出太陽, 而奪其母神故也.”, “肩之膜海, 靈之所舍也. 靈之爲氣, 嚴肅而酷態度, 自有威儀. 則此句之論, 少陽人言, 而太陰人言者, 蓋太陰生少陽, 而假其子靈故也.”, “腰之血海, 魂之所舍也. 魂之爲氣, 顯達而奇行裝, 自有材幹. 則此句之論, 太陰人言, 而少陽人言者, 蓋少陽出太陰, 而憑其母魂故也.”, “腎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太而壯經營, 自有方略. 則此句之論, 少陰人言, 而太陽人言者, 蓋太陽生少陰, 而恃其子魄故也.”라 하였다.

母		子		
太陽	神	奪	→ 樂	少陰
	哀	恃	魄	
太陰	喜	假	靈	少陽
	魂	憑	→ 怒	

표 10. 太陽과 少陰, 太陰과 少陽의 母子 관계에서의 神靈魂魄 기운의 운동

위 내용을 四臟의 哀怒喜樂之氣와 연관시켜 설명하면 上焦·太陽의 哀氣는 下焦·少陰의 魄을 의지하여 發用되므로 哀氣는 下焦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上焦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中上焦·少陽의 怒氣는 中下焦·太陰의 魂을 빙자하여 發用되므로 怒氣는 中下焦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中上焦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中下焦·太陰의 喜氣는 中上焦·少陽의 靈을 빌어서 發用되므로 喜氣는 中上焦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中下焦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下焦·少陰의 樂氣는 上焦·太陽의 神을 뺏어서 發用되므로 樂氣는 上焦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下焦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哀怒喜樂之氣의 四焦에서의 升降運動

위 내용을 바탕으로 哀怒喜樂之氣의 운동 양상을 모식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sup>92)</sup>

92) 四焦에서 性情의 喜怒哀樂之氣가 운동하는 모식도에서 性氣부분에서는 氣가 注入되는 부위에, 情氣 부분에서는 氣가 激하는 부위에 표시를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四象人	四焦	四氣	四臟	心·性氣	四氣升降
太陽人	上焦	哀	肺	←	哀氣直升
少陽人	中上焦	怒	脾	↗ ↘	怒氣橫升
				心	
太陰人	中下焦	喜	肝	↘ ↗	喜氣放降
少陰人	下焦	樂	腎	←	樂氣陷降

표 11. 哀怒喜樂 性氣의 운동

위 性氣 운동 모식도에서 性氣는 順動之氣로서 天機를 耳目鼻口를 통해 心으로 받아들여 四臟에 性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性氣가 도달하는 부위에 氣를 注入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性氣의 운동에 따라 太少陰陽人의 偏大之臟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sup>93)</sup>

93)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太陽之聽, 能廣博於天時故, 太陽之神, 充足於頭腦而, 歸肺者, 大也. 太陽之嗅, 不能廣博於人倫故, 太陽之血, 不充足於腰脊而, 歸肝者, 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少陽之視, 能廣博於世會故, 少陽之氣, 充足於背脊而, 歸脾者, 大也. 少陽之味, 不能廣博於地方故, 少陽之精, 不充足於膀胱而, 歸腎者, 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太陰之嗅, 能廣博於人倫故, 太陰之血, 充足於腰脊而, 歸肝者, 大也. 太陰之聽, 不能廣博於天時故, 太陰之神, 不充足於頭腦而, 歸肺者, 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少陰之味, 能廣博於地方故, 少陰之精, 充足於膀胱而, 歸腎者, 大也. 少陰之視, 不能廣博於世會故, 少陰之氣, 不充足於背脊而, 歸脾者, 小也.”라 하였다.

四焦·四臟			四臟之氣·情氣				四氣升降
四焦	部位	四臟	哀	怒	喜	樂	
上焦	背頤	肺				■	哀氣直升
中上焦	胸腋	脾			■		怒氣橫升
中下焦	腰脇	肝		■			喜氣放降
下焦	脊曲	腎	■				樂氣陷降
四象人			少陽人	太陽人	少陰人	太陰人	

표 12. 哀怒喜樂 情氣의 운동

위 情氣 운동 모식도에서 情氣는 逆動之氣로서 肺脾肝腎 四臟이 人事를 行하면서 哀怒喜樂의 情氣를 사용하게 되며 哀怒喜樂의 情氣가 發用되어 쓰여질 때에는 기운이 發動하는 부위의 臟局을 激하여 削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太少陰陽人的 偏小之臟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sup>94)</sup>

### III. 考察

기존 儒學에서는 人間의 本性을 理的인 측면에서의 性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宋代로 넘어오면서 朱子에 의해 性을 天命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天理로서의 純善한 性을 天命之性으로, 理와 氣가 섞여 淸濁의 구별이 있어 善하고 惡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性을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性을 人性으로 정의하였으며, 또 “性者, 心之理. 情者, 性之動. 心者, 性情

9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已也. 怒情, 非他, 怒也.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已也. 哀情, 非他, 哀也.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已也. 樂情, 非他, 樂也.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已也. 喜情, 非他, 喜也.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이라 하였다.

之主.”라하여 性을 인간이 하늘로부터 稟賦받은 心の 理致로, 情을 心에 담겨있는 理致가 현실생활에 쓰일 때 動靜의 變化가 유발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하늘의 理致를 담고 있는 心이야말로 性과 情의 主가 된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기존 儒學에서는 性은 理로 규정하고 性의 理致는 仁義禮智로 살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情은 性의 理致가 氣로써 變化되고 쓰여질 때 나타나는 喜怒哀樂의 감정 상태로써 표현되어진다고 하고 있으나, 東武公은 이러한 性情觀과는 다르게 心을 理로 규정하고 仁義禮智는 肺脾肝腎의 四臟에 담겨 있으며 肺脾肝腎의 仁義禮智가 홀로 편안히 있는 安身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變化를 自己獨得之性,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이라 하여 이를 性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타인이나 외부 자극과의 교류가 있는, 즉 往來臨立, 達合立定의 人事가 관여하는 接人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變化를 與人相接之性,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이라 하여 이를 情으로 규정하였다. 즉, 朱子는 喜怒哀樂이 未發한 것을 性으로 已發한 것을 情으로 규정하여 性은 未發한 것으로 그 자체가 치우침이 없는 中으로써 바로 天下之大本인 天命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喜怒哀樂이 已發한 것을 情으로 규정하여 節에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東武公은 自己獨得之性을 性으로 與人相接之性을 情으로 규정하였으며, 性에도 善惡이 있어 喜怒哀樂이 未發하였을 때에는 항상 警戒(恒戒)함으로써 中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喜怒哀樂이 已發하였을 때에는 스스로 反성(自反)함으로써 節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天命은 그대로 人心으로 연결되고 心은 中央之太極으로서 理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肺脾肝腎의 四臟은 四維之四象으로서 현실적으로 氣가 運動 變化하는 場이다. 이러한 氣의 운동변화는 喜怒哀樂之氣의 升降으로 표현되며 체질적으로 稟賦받은 性情의 偏差에 따라 喜怒哀樂之氣의 升降運動에 過不及이 초래된다.

東武公은 性을 天의 개념에서, 情을 人의 개념에서 파악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性과 耳目鼻口의 聽

視嗅味之力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선천적으로 稟賦받는 性의 차이는 바로 天機를 받아들이는 聽視嗅味之力의 차이인 것이고 이로 인해 臟腑大小, 性情의 特長, 人事의 能·不能, 性質, 材幹 등이 차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好善이 無雙한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은 天機를 살핍에 善한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게 적절한 것을 순응하여 받아들여 同一化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하늘(天)의 善聲, 善色, 善臭, 善味를 耳目鼻口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順으로 작용하여 자연의 순리를 내 몸 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性으로 축적하는 것이다. 惡惡이 無雙한 肺脾肝腎의 哀怒喜樂의 升降出入 기능은 人事를 行함에 惡한 것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내게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것을 선별하여 밀쳐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耳目鼻口로 받아들여진 天의 聲色臭味를 肺脾肝腎이 다시 善惡을 개별적인(各立) 나의 입장에서 선별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은 肺脾肝腎의 哀怒喜樂之情의 기운을 逆의 기능으로 운용하여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哀怒喜樂之氣의 運動양상을 順動과 逆動으로 표현하였는데 기운의 움직임은 대조적인 양상을 逆順의 개념을 들어 설명한 것이다. 逆順을 『周易』에서 '順'은 天으로부터 人(地)으로 統一되어가는 과정을, '逆'은 人(地)으로부터 외부세계(天)로 發展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順動之氣인 性은 天理로부터 心으로 理致가 부여되어 四臟으로 기운이 축적되는 과정이며, 逆動之氣인 情은 心의 변화로 인해 四臟에서 기운이 몸을 통해 소모되어 나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心身의 過不及으로 인해 일어나는 병리적인 현상에서 哀怒喜樂之性이 과도해지면 안으로 깊게 深着하여 병들게 되며, 哀怒喜樂之情이 과도해지면 陽情은 暴發하고 陰情은 浪發하여 바깥으로 격심하게 표출되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즉, 性은 그 방향성이 天機를 好善의 입장에서 順하게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과도해지면 안으로 깊게 深着해지게 되는 것이며, 情은 그 방향성이 四臟의 기운을 惡惡의 입장에서 逆하게 發用하는 작용을 하

기 때문에 그 작용이 과도해지면 바깥으로 暴發·浪發하는 양상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이다.

哀怒喜樂의 性情은, 哀怒의 陽氣는 陽氣끼리, 喜樂의 陰氣는 陰氣끼리 同氣相求하여 서로 相成·相資하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陽氣인 哀怒之氣를 작용 방향성에서 다시 表裏의 개념으로 나누어보면 哀氣는 본래 裏로 작용하여 안으로 갈무리되듯이 悲哀動中하게 되고 怒氣는 본래 表로 작용하여 바깥으로 퍼져나가듯이 忿怒激外하게 되나 哀怒之氣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極에 다다르게 되면 表裏가 極變하여 哀性 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하게 된다. 또 陰氣인 喜樂之氣는 喜氣는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감정 상태로 表에서 작용하여 넓게 퍼져나가며, 樂氣는 혼자서 즐기는 감정 상태로 裏에서 작용하여 깊고 확고하게 고정되나 그 작용이 極에 달하게 되면 表裏가 極變함으로써 喜性極則樂情動, 樂性極則喜情動하게 된다.

性은 天理之變化의 理致가 그대로 人身의 心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이 性氣로 작용하여 四維之四象인 四臟으로 氣가 주입되며 이때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양상이 哀怒喜樂之性일 것이며, 性에 의해 四臟에 축적된 氣가 發用하면서 외부 人事에 작용을 할 때 情氣로 작용하면서 드러나는 기운의 변화 양상을 哀怒喜樂之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의 臟理構造를 형성하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작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性이 보다 先天·體에, 情이 보다 後天·用에 해당하는 개념인 것이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心과 四臟의 관계를 理와 氣의 입장에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浩然之氣와 浩然之理는 心身의 관계가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心에 대해서는 理, 身에 대해서는 氣의 개념을 도입시켜 설명하면서 性情을 喜怒哀樂과 결합시켜 氣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心은 中央之太極으로서 理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哀怒喜樂의 性情이 哀怒喜樂之氣로 의미가 확충되면서 順動之氣는 哀怒喜樂之性氣로서 四臟에 기운을 주입시키는 작용을 하고, 逆動之氣는 哀怒喜樂之情氣로서 四臟으로부터 기운을 소모시키는 작용을 하여 臟局의 大小偏差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草藁』에서는 人性的의 두 가지 양상, 즉 往來臨立의 命이 없어 喜怒哀樂이 未發한 自己獨得之性을 安身으로, 往來臨立의 命이 있어 人事의 達合立定을 行함으로써 喜怒哀樂이 已發한 與人相接之性을 接人으로 설명하였다. 安身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喜怒哀樂之未發之性은 耳目鼻口가 順善하게 天機를 받아들여 心의 人性을 기르고, 四臟에 喜怒哀樂之氣를 주입시키는 작용을 한다. 接人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喜怒哀樂之已發之性은 四臟에 축적된 喜怒哀樂之氣를 發用하여 往來臨立의 命, 즉 達合立定의 人事를 肺脾肝腎이 逆하게 惡惡으로써 行하는 작용을 한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太少陰陽의 性情에 따른 氣운의 변화로 太少陰陽의 大小臟局이 형성되는 기전을 설명한 문장과 喜怒哀樂의 情氣 운동변화에 따른 肺脾肝腎이 손상되는 기전을 설명한 문장을 함께 비교해 보면 喜怒哀樂의 氣운이 작용을 시작하는 부위와 그 氣운이 도달하는 부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順動之氣인 性은 天機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외부의 氣운을 心의 偏向性에 따라 四臟으로 注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逆動之氣인 情은 人事를 行하는 입장에서 내부의 四臟 에너지를 發用하면서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心으로부터 喜怒哀樂의 性氣의 움직임에 따라 四臟으로 氣운이 들어가게 되며, 肺脾肝腎의 四臟으로 부터 喜怒哀樂의 情氣의 움직임에 따라 四臟의 氣운이 發用, 消耗되어지는 것이다.

心이 天理之變化를 耳目鼻口로써 察天機하여 받아들인 후 性氣의 활동을 통해 四臟으로 氣운을 注入시키고, 性氣의 衰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하는 속성에 따라 四臟으로 氣운이 注入되는 양상도 틀리게 작용하게 된다. 性氣는 心에서 출발하는 順動之氣이기 때문에 喜怒哀樂之氣의 升降에 따라 각기 肺脾肝腎으로 氣운이 주입되게 되는 것이다.

四臟이 天命을 이루어 내면서 人事를 行할 때 情氣를 發用하게 되는데 肺脾肝腎의 四臟之氣가 喜怒哀

樂의 四氣로 升降을 할 때에는 衰氣는 下焦 腎局에서 上焦 肺局으로, 怒氣는 中下焦 肝局에서 中上焦 脾局으로, 喜氣는 中上焦 脾局에서 中下焦 肝局으로, 樂氣는 上焦 肺局에서 下焦 腎局으로 각기 直升, 橫升, 放降, 陷降하게 된다. 그러므로 四臟의 氣운을 發用하여 소모하면서 喜怒哀樂之氣가 현상화될 때에는 氣운이 발동하는 臟의 神靈魂魄이 쓰이면서 四氣의 歸着處에서 情의 發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性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으로 天機를 살피는 능력과 같은 것이며 太少陰陽은 耳目鼻口의 天機를 살피는 능력의 차이로 그 性의 偏差가 결정되어지고 또 그 性의 偏差에 의해 性氣의 운동 傾向성에도 편차가 생겨 偏大·偏小之臟의 臟理구조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太陽人은 天時의 輕淸한 無形之聲인 神을 귀의 聽力으로 廣博하게 받아들여 神을 頭腦에 充足시켜 肺大하게 되며, 少陽人은 世會의 浮動한 有像之色인 靈을 눈의 視力으로 廣博하게 받아들여 氣를 背脊에 充足하여 脾大하게 되고, 太陰人은 人倫의 沈靜한 無跡之像인 魂을 코의 嗅力으로 廣博하게 받아들여 血을 腰脊에 充足시켜 肝大하게 되며, 少陰人은 地方의 重濁한 有質之滋인 魄을 입의 味力으로 廣博하게 받아들여 精을 膀胱에 充足하여 腎大하게 된다. 이러한 耳目鼻口의 기능으로 喜怒哀樂의 順動之氣인 性이 神靈魂魄을 받아들여 神氣血精을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의 後四海에 주입함으로써 偏大之臟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太陽人이 衰性이 遠散함으로서 그 반대 기능인 鼻의 人倫之嗅力은 떨어져 肝小하게 되고, 少陽人이 怒性 宏抱함으로서 그 반대 기능인 口의 地方之味力은 떨어져 腎小하게 되며, 太陰人이 喜性이 廣張함으로서 그 반대 기능인 耳의 天時之聽力은 떨어져 肺小하게 되고, 少陰人이 樂性이 深確함으로서 그 반대 기능인 目의 世會之視力은 떨어져 脾小하게 된다.

衰性의 氣운은 心에서 直升하여 肺로, 怒性의 氣운은 心에서 橫升하여 脾로, 喜性의 氣운은 心에서

放降하여 肝으로, 樂性의 기운은 心에서 陷降하여 腎으로 기운이 주입되게 된다.

『東武遺稿』의 自註에서 ‘少陰은 太陽에서 出하는데 少陰이 太陽의 神을 뺏어서 사용하고, 太陰은 少陽을 낳는데 太陰이 少陽의 靈을 빌어서 사용하며, 少陽은 太陰에서 出하는데 少陽이 太陰의 魂을 빙자하여 사용하고, 太陽이 少陰을 生하는데 太陽이 少陰의 魄을 믿고 의지하여 사용한다.’라고 표현한 문장을 보면 太陽의 현상적인 활동은 少陰 腎臟의 에너지인 魄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少陽의 현상적인 활동은 太陰 肝臟의 에너지인 魂을 끌어다가 사용하며, 太陰의 현상적인 활동은 少陽 脾臟의 에너지인 靈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少陰의 현상적인 활동은 太陽 肺臟의 에너지인 神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哀氣는 下焦 少陰에서 上焦 太陽으로 魄이 發用되어지는 것이고, 怒氣는 中下焦 太陰에서 中上焦 少陽으로 魂이 發用되어지는 것이며, 喜氣는 中上焦 少陽에서 中下焦 太陰으로 靈이 發用되어지는 것이고, 樂氣는 上焦 太陽에서 下焦 少陰으로 神이 發用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神靈魂魄은 後四海인 臟膜血精海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四臟의 에너지 속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神靈魂魄의 움직임은 四臟之氣인 哀怒喜樂之氣의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哀情의 기운은 下焦에서 直升하여 肺부위 上焦에 다다르며, 怒情의 기운은 中下焦에서 橫升하여 脾부위 中上焦에 다다르고, 喜情의 기운은 中上焦에서 放降하여 肝부위 中下焦에 다다르며, 樂情의 기운은 上焦에서 陷降하여 腎부위 下焦에 다다른다. 그러므로 順動之氣인 性氣의 운동에 의해 기운이 도달하는 부위에 축적되어 哀氣에 의해 肺益盛하며, 怒氣에 의해 脾益盛하고, 喜氣에 의해 肝益盛하며, 樂氣에 의해 腎益盛하게 된다. 그리고 逆動之氣인 情氣의 운동에 의해 기운이 출발하는 부위에서 소모되므로 怒情에 의해 肝益削하게되며, 哀情에 의해 腎益削해지게 되고, 樂情에 의해 肺益削하게되며, 喜情에 의해 脾益削해지게 된다.

이러한 哀怒喜樂之氣의 운동방향성을 근거로 太

陽人은 哀性이 遠散, 順動·直升함으로써 氣가 上焦 肺로 注入됨과 동시에 怒情이 促急, 逆動·橫升하여 肝으로부터 氣가 빠져나와 肺益盛, 肝益削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 順動·橫升함으로써 氣가 中上焦 脾로 注入됨과 동시에 哀情이 促急, 逆動·直升하여 腎으로부터 氣가 빠져나와 脾益盛, 腎益削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 順動·放降함으로써 氣가 中下焦 肝으로 注入됨과 동시에 樂情이 促急, 逆動·陷降하여 肺로부터 氣가 빠져나와 肝益盛, 肺益削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 順動·陷降함으로써 氣가 下焦 腎으로 注入됨과 동시에 喜情이 促急, 逆動·放降하여 脾로부터 氣가 빠져나와 腎益盛, 脾益削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結論

1. 東武公의 性情의 개념은 好善이 無雙한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으로 天機를 살림에 善한 것을 순응하여 받아들여 同一化하는 작용을 하는 과정이 性이며, 惡惡이 無雙한 肺脾肝腎의 哀怒喜樂之氣로써 人事를 行함에 惡한 것을 거부하고 내게 주어진 命을 따르고자 逆하게 四臟之氣를 發用하는 과정이 情이다.

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언급된 順動之氣는 天理로부터 心으로 理致가 부여되어 四臟으로 기운이 注入되는 과정이며 이를 性氣의 작용으로 볼 수 있고, 逆動之氣는 心의 변화로 인해 四臟에서 기운이 몸을 통해 소모되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情氣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3. 性情의 相成·相資는 上升하는 哀怒의 陽氣는 陽氣끼리 下降하는 喜樂의 陰氣는 陰氣끼리 서로 同氣相求하여 상호 전환되며, 哀氣와 怒氣, 喜氣와 樂氣는 서로 表裏의 陰陽관계가 되어 性情이 陰極生陽, 陽極生陰하는 상호 表裏 極變하게 되는 관계로 相成

· 相資하게 된다.

4. 東武公은 天命이 人性으로 주어지는 단계를 理의 차원에서, 人性이 哀怒喜樂의 기운으로 현상화되는 것을 氣의 차원에서 해석하였으며, 喜怒哀樂이 未發한 상태를 性으로, 喜怒哀樂이 已發한 상태를 情으로 설명하였다.

5. 東武公은 人性이 內外로 드러나는 두 가지 양상을 ‘사물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교류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哀怒喜樂의 운동’을 未發之性으로 보고 이를 自己獨得之性이라하였으며 安身과 性的 범주에서 설명하였다. ‘자신의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표출되어지고 교류되어지는 哀怒喜樂의 운동’을 已發之性으로 보고 이를 與人相接之性이라 하였으며 接人과 情의 범주에서 설명하였다.

6. 心이 天機를 耳目鼻口로써 받아들인 후 性氣의 활동을 통해 四臟으로 기운을 注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性氣는 順動之氣이므로 哀怒喜樂之氣의 기운이 도달하는 부위에 에너지를 注入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偏大之臟을 형성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7. 四臟이 哀怒喜樂之氣로써 人事를 行할 때 情氣를 發用하는데 哀氣는 下焦 腎局에서 上焦 肺局으로, 怒氣는 中下焦 肝局에서 中上焦 脾局으로, 喜氣는 中上焦 脾局에서 中下焦 肝局으로, 樂氣는 上焦 肺局에서 下焦 腎局으로 각기 直升, 橫升, 放降, 陷降하게 된다. 四臟의 기운이 發用될 때에는 逆動之氣로써 기운이 발동하는 臟局의 神靈魂魄이 소모되면서 哀怒喜樂之氣가 도달하는 歸着處에 情의 發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8. 性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으로 天機를 살피는 능력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聽視嗅味之力의 편차에 의해 太少陰陽人의 人稟臟理가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性의 편차에 따라 性氣와 情氣의 운동 편향성이 체질별로 틀러지게 되며 性氣의 운동 변화로 偏大之臟이 益偏大해지게 되며, 情氣의 운동 변화로 偏小

之臟이 益偏小해지게 된다.

## 參 考 文 獻

### <논문>

1. 權健赫. 黃帝內經 靈樞 27篇 周痺篇에 대한 考察. 동의형상의학회. 2004.
2. 宋一炳.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우리 民族의 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 16(3).
3. 白裕相.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問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4. 17(1).
4. 林眞喜. 東武 李濟馬의 人間觀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3.
5. 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1) 性命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6. 김만산.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2) 四端論에 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1999.
7. 權健赫. 太少陰陽人에 대한 形氣論의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7.
8. 許萬會.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關한 研究. 경희대 대학원. 1991.
9. 金貞香, 宋一炳. 李濟馬의 性情論에 관한 考察. 경희대 대학원. 1990.
10. 薛有暉. 四象醫學에서 性情의 개념과 腦와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1.

### <단행본>

1. 윤종빈, 김영목 著. 사상의학의 역철학적 기초. 대전. 문경출판사. 2004.
2.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3. 李濟馬 原著, 權健赫 編輯. 李濟馬全書. 서울. 圖書出版盤龍. 2002.
4. 李濟馬 原著, 朴大植 譯註. 格致藁. 화성. 청계出版社. 2002.

5. 李濟馬 原著, 李廷燦 譯註. 四象醫學의 研究. 서울. 圖書出版 木과 土. 2001.
6. 김형태 譯. 東醫壽世保元 講義.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9.
7. 李濟馬 原著, 權健赫 譯. 國譯 東醫壽世保元. 서울. 圖書出版盤龍. 1999.
8. 韓錫地 原著, 김달래역. 明善錄. 서울. 圖書出版 정담. 1998.
9. 全國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10. 李濟馬 原著, 洪淳用, 李乙浩 譯述. 四象醫學 原論. 서울. 杏林出版. 1989.
11.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 1989.
12.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台北. 天工書局. 1985.
13.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K C I